

제23기
가야학아카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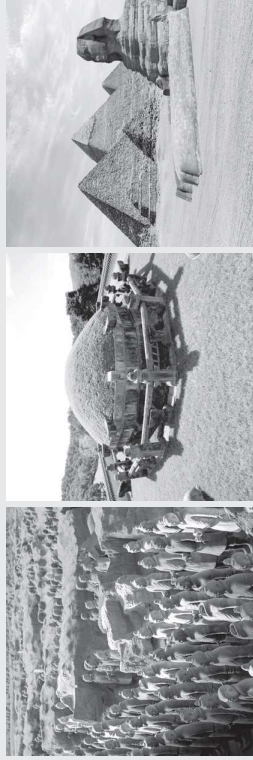
| 탁월한 보편적 가치, 유네스코 세계 유산 I **왕릉편** |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제23기 가야학아카데미

| 탁월한 보편적 가치, 유네스코 세계 유산 I **왕릉편** |



교 육 개 요

- 기 간 : 2022.5.3.(화)~6.22.(수) 매주 1회, 14:00~16:00(2시간)
- 횟 수 : 온라인 강의 7회
- 장 소 : 국립김해박물관 공식 유튜브

강 의 일 정

회차	일자	주제	강사 및 소속
1	5.3. (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이해와 쟁점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2	5.12. (목)	이집트의 피라미드	곽민수 한국이집트학연구소 소장
3	5.20. (금)	고대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왕국과 베르기나(아이가이)의 왕릉	김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불가리아학과 교수
4	5.25. (수)	절대군주가 꿈꾼 영생의 기원, 중국 진시황릉	심재훈 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5	6.8. (수)	장묘 문화의 정수, 조선왕릉	장경희 한서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6	6.15. (수)	가야: 자울과 공존의 이름	하승철 가야고보문 세계유산등재추진단
7	6.22. (수)	지속가능한 세계유산을 위한 보존과 활용	신희권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 강사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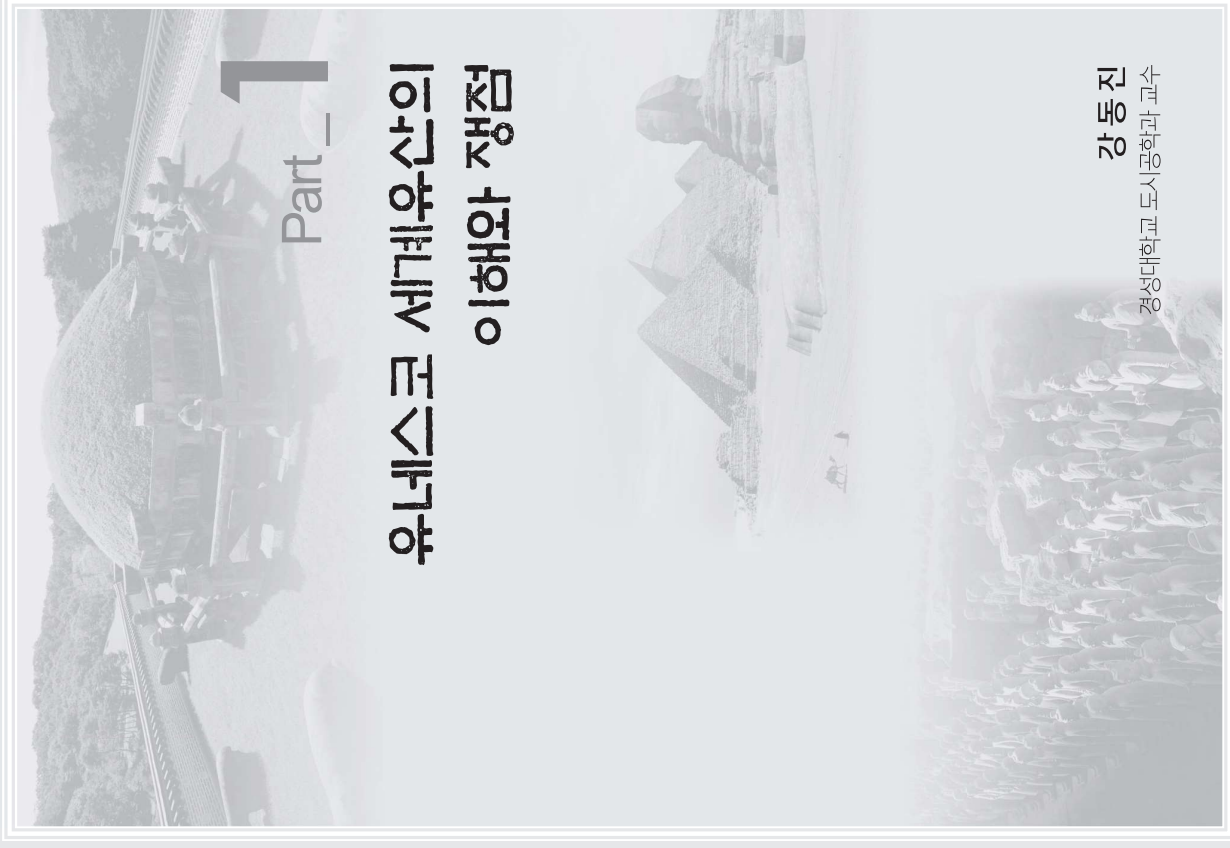
제23기 가야학아카데미

| 탁월한 모편적 가치, 유네스코 세계유산 I | **왕릉편** |

1.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이해와 쟁점	7
2. 이집트의 피라미드	35
3. 고대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왕국과 베르기나(아이가이)의 왕릉	49
4. 절대군주가 꿈꾼 영생의 기원, 중국 진시황릉	67
5. 장묘 문화의 정수, 조선왕릉	77
6. 가야! 자율과 공존의 이름	89
7. 지속가능한 세계유산을 위한 보존과 활용	103

제23기 가야학아카데미

| 탁월한 모험적 가치, 유네스코 세계유산 | **영동편** |



Part_1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이해와 쟁점

강동진
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본 강의록은 강연자가 작성한 각종 글에서 발췌하여 재구성된 것입니다.

1. 들어가며

2022년 3월 현재, 167개국 1,154점의 유산이 세계유산(World Heritage)에 등재되어 있다. 문화유산은 897점, 자연유산은 218점, 복합유산은 39점이다. 또한, 등재의 예비적 성격을 가지는 잠정목록(tentative lists)은 1,729개소(우리나라 12개소)에 이른다.

자연자원이 한 번 훼손되면 원래의 상태로 복구될 수 없는 불가역성(irreversibility)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역사문화자원 또한 한 번 훼손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비대체성(irreplacability)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자연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을 보전해야 한다.'는 현세대가 가져야 할 국제·사회적인 책무와 연계된다. 이러한 책무를 충실하게 지키거나 강화하면 할수록 국가의 문화 지표와 경제 지수가 상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또한 컬처노믹스(culture-nomics)를 이루어 가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임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유산의 등재에 대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그림1] 세계유산의 현황

그러나 이렇게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위해 노력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리라 생각된다. 세계유산에 대한 열망의 이유는 아미 시대 정신의 변화가 주원인인 듯하다. 한때는 마천루 건설 능력,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 등이 국가 수준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해당 국가의 상징성과 문화적 권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산의 양과 질적 수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위상이 결정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이 관광산업과 연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이 세계유산의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국가들 스스로 이러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세계유산의 보유 정도가 문화강대국의

인증 기준이 되는 가운데, 이탈리아(58개소), 중국(56개소), 독일(51개소), 스페인(49개소), 프랑스(49개소) 등이 순위를 다투고 있다.

한편, 세계유산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다가오며 시대의 걸작이나 강력한 국제적 수준의 역사성을 가지는 유산들의 양적 고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유산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주 대상은 고대와 전근대 시대에서 근대시대로 이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근대기 산업기술과 그 결과물들의 등재 기회가 크게 확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는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영국, 독일 등 근대산업기술의 발전을 크게 이루었던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탈유렵의 경향 속에서 근대 관련 유산의 등재를 위한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시선 가운데 본 강의를 진행하려 한다. 먼저는 세계유산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함께 세계유산은 무엇으로 구성되며 어떤 조건으로 등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다. 다음으로는 21세기 들어 행해지고 있는 세계유산과 관련된 전반의 흐름을 이해하고, 특히 근대기에 형성된 유산들의 등재 관련 논점들을 파악한다.

2. 세계유산 제도의 탄생 과정

세계유산의 개념은 우연한 계기로 태동하였다. 개발 행위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였다. 1950년대 말 전력 수급 등의 이유로 이집트 정

부는 나일강 유역에 아스완하이댐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물을 모으는 것이 댐 건설의 주목적이니만큼 중상류 지역의 수물은 필연의 상황이었다.

불행히도 이집트와 수단 국경에 걸쳐있는 고대 아스완 지역의 누비아 유적(Nubian Monuments)이 수몰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가난했던 두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유네스코에 손을 내밀게 되었다. 그 해가 1959년이었고, 수몰에 처한 누비아 유적의 이전 미션은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모금한 약 8천만 달러로 1980년까지 진행되었다.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을 즈음 이 일에 동참하던 세계인들은 인류가 남긴 문화와 자연이 특정한 외부의 힘으로 파괴될 수 있고, 결국 인류의 삶이 빈곤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러한 자각은 1972년 인류 역사의 중요 유산들에 대한 보호 운동, 즉 제17차 유네스코 파리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이하 '세계유산협약'))'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세계인들은 두 가지의 특별한 관점을 갖게 되었다. 결 과물 자체를 중시하는 문화재 개념에서 전승과 공유를 중심으로 하는 '유산 개념'으로의 시선 확장이 첫 번째였고, 둘째는 국경을 초월하는 유산 보호, 즉 '국제협력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었다.



[그림2] 누비아 유적의 이전 과정 ©UNESCO

3. 세계유산의 개념과 등재 조건

세계유산은 등재를 위해 '탁월하고도 보편적인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이하 'OUV')의 보유 여부가 판명되어야 한다. 10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할 필요는 없으며, 1가지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여도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자연유산(Natural Heritage), 복합유산(Mixed Heritage)으로 구성된다. 문화유산은 I~VI번 기준에 해당하며, 자연유산은 VII~X에 해당한다. 복합유산은 두 가지의 기준 모두에 합당해야 한다¹⁾.

기준 I 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Masterpiece)을 대표할 것이며, 기준 II 는 긴 세월이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한 물증(Values/Influence)이어야 한다. 기준 III 은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Testimony)여야 한다.

기준 IV 는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측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Typology)여야 하며, 기준 V 는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Land-Use)여야 한다. 기준 VI 는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Associations)되어야 한다. 특히 기준 VII 은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하고 있다. 사실 기준 VIII 은 가장 특이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데, 특정한 사건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되는 물증들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데, 그 사건은 대항살, 전쟁, 원폭(실험), 노예수송 등이 있다.

1) 이의 내용은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에 기술되어 있다.

기준Ⅶ은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Natural Beauty)을 지닌 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준Ⅷ은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 과정, 지형학이나 자연 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On-going Geological process)하는 대표적 사례여야 한다. 기준Ⅷ은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On-going Ecological and Biological Process)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기준Ⅹ는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Biological Diversity)를 포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세계유산은 공통으로 완전성(Integrity)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를 보유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완전성은 자연유산 및/또는 문화유산과 그 속성들의 완전함(wholeness)과 온전함(intactness)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완전성의 조건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에 대해 유산을 평가해야 한다. 특히, OUV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의 포함하여야 하고, 유산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특징과 과정을 완전하게 나타낼 만한 적절한 규모여야 하며, 개발 및 또는 방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문화유산은 별도로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유하여야 한다. 유네스코에서는 진정성을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 관리체계, 위치와 주변 환경, 언어,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 정신과 감정, 다른 내부와 외부 요소 등의 속성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진실하고(truthfully) 신뢰할 만하게(credibly)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표1]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

공 통	세계유산은 공통으로 완전성 (Integrity; 유산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요소 보유)이 반드시 필요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빛이진 걸작을 대표할 것 (Masterpiece)
II	오랜 세월이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Values/Influence)
III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Testimony)
IV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Typology)
V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자·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Land-Use)
VI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Associations)
모든 세계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형태와 디자인, 제질, 기법, 의식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이 반드시 필요	

Ⅶ	최상의 자연 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할 것 (Natural Beauty)
Ⅷ	생명의 기록이나, 지형 발전상의 지질학적 주요 진행과정,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해 지구 역사상 주요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 (On-going Geological process)
Ⅸ	육상, 민물,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락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 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일 것 (On-going Ecological and Biological Process)
Ⅹ	과학이나 보존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고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 (Biological Diversity)

자연유산

영국(19개소/33개소 중), 브라질(14개소/23개소 중), 멕시코(12개소/35개소 중) 등으로 나타난다. 산업혁명과 깊게 연관된 두 국가는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으나, 브라질과 멕시코의 상위 순위는 매우 이색적이다. 이는 식민시대와 대륙개척사와 연관되어 탄생한 근대유산들의 분포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 또한 25개 유산 중 7개 소가 근대기에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확산 가운데 나타나는 특성 중 하나는 근대기에 발생한 부정적인 역사와 연관된 각종 유산을 미래 교훈의 대상으로 삼자는 논리의 등장이다. 최근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주목을 받는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나, 네거티브유산(Negative Heritage)과 불편문화유산(Difficult Heritage) 등의 개념 형성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 독일 나치 강제 수용소 및 집단 학살 수용소(Auschwitz Birkenau: German Nazi Concentration and Extermination Camp(1940-1945))'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파괴되어 지구상에서 없어졌을 때 한 민족이 한 민족을 학살했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에, 전 세계인은 이곳을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의 장으로 삼자."는 뜻으로 이곳의 세계유산 등재를 수용했고, 이를 계기로 부정의 성격을 가진 유산들의 등재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4. 세계유산의 등재 경향 : 근대 관점

현재 1,154개소의 세계유산 중 근대기에 형성된 것으로는 약 250여 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혁명의 시작을 근대기의 기점으로 하기에, 근대 관련 세계유산들은 산업혁명과 관련되거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유산들이 해당한다. 따라서 산업혁명을 직접 겪었던 유럽 국가들이 근대 관련 세계유산 수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다.

근대 관련 세계유산 보유 상위 5개국을 독일(23개소/51개소 중),



[그림3] 네거티브 성격의 유산 등재의 시초가 된 아우슈비츠 감옥 ©UNESCO

한편, 전근대기와 비교하여 근대기에 형성된 유산들의 등재에 있어 몇 가지의 경향성이 발견된다²⁾. 첫째는 '탁월성'보다는 '보편성'이 강조되는 유산의 등재'이다. 근대기는 수운기술 발달에 따른 해상무역의 확산과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량생산,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야기된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또한, 인종차별과 연관된 영토 확장을 위한 침략 시대이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 배경은 유산 자체의 고유한 가치보다 전쟁과 평화, 인간 존엄성 파괴에 따른 저항, 산업화와 기술 발전 등 여러 유형의 이야기와 연계된 무형적 성격을 가진 유산이 증가하는 경향을 낳았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유산들은 대부분 특정 사건에 연관되며, 산업혁명, 식민지개척과 갱탈, 제1·2차 세계대전, 민주화 투쟁, 원자폭탄 투하, 원폭실험 등이 주를 이룬다.

또한, 근대 관련 유산들은 지역(대륙) 차원에서 최초, 최대, 최고 등 특별함을 속성으로 하는 보편적 희소성이 강조되는 것이 주를 차지

2) 자세한 설명은 강동진·배연환(2015), "산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경향과 논점 분석", 『국토계획』, 제50권 제2호; 강동진(2020), "근대기 세계유산에 대한 판단", 『세계유산의 새로운 해석과 전망』, (사)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호를 참고할 수 있다.

한다. 최초 노예수송, 최초 소금광산, 최초 노예시장, 최초 노예 부두, 최초 철교, 당시 최대의 도시계획실험장, 최초 근대식 식물원, 최초 산악철도, 최초 커피 재배지, 최초 증기선 출발지, 증기선 운항을 위한 최초 운하, 산업혁명 최초 이상주의 건축군, 최대 건식수로제, 최대 토목공사, 최초 열대식물원, 아시아 최초의 산업혁명 유산, 최초 사회복지 개념의 탄생지, 최대의 광산, 최고의 제철소, 특별한 산품 생산지 등이 해당한다.

New Lan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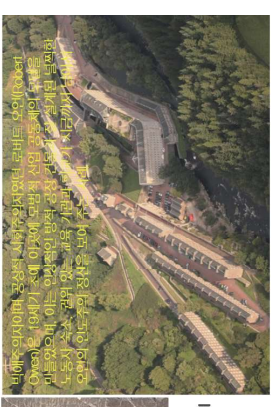
등재년도 : 2001년 / 스코틀랜드 서우스 레너크셔(South Lanarkshire) / 유산면적(완충구역) : 146ha(667ha)



(ii) 라켓트(아크라이트의 새로운 차콜 제조 공장 시스템) 뉴 레너크에 도입되자, 노동자와 관리자들을 위한 숙소 및 기타 시설이 필요해졌다. 그리고 로버트 오언은 19세기와 20세기에 전 세계로 확산된 산업 공동체의 모델을 이곳에 만들었다.

(iv) 뉴 레너크에는 시설이 잘 갖추어진 훌륭한 설계의 노동자 숙소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정선적·육체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공공건물도 건설되었다.

(v) 뉴 레너크라는 이름은 로버트 오언과 그의 사회 철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진보적인 교육, 공장 개혁, 인간적인 노동 조건, 국제적 협력, 청결 도시 등에 투영된 그의 사회 철학은 19세기와 그 이후 시대까지 사회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림4] 보편적 희소성이 강조되는 유산 : 최초 사회복지 개념의 탄생지

둘째는 '근대사가 반영된 네거티브유산의 증가'이다. 2022년 3월 현재 세계유산 중 네거티브 성격을 가지는 유산은 60개여 개소로 조사되며, 주제는 전쟁, 학살, 분규, 착취, 식민사회 등과 관련된다. 네 거티브유산의 등재 이유는 후대에 대한 교훈 제공이 주된 이유인데,

에를 들어 “인류에게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후대가 기억하여야 할 독립과 민주화의 저항 현장이다.” “비록 불행한 역사이지만 국제적인 화해와 평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산은 국가 간 상충한 시각으로 인해 국제적 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있으며, 2015년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등재로 인해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Bikini Atoll Nuclear Test Site

등재년도 : 2010년 / 마셜제도 / 유산면적(연중구역) : 73,500 ha(130,425 ha)



미국은 태평양 마셜 제도의 비키니 환초에서 핵실험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역 주민을 이주시킨 뒤 1946년~1968년에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1952년)을 포함해 총 67회의 핵실험이 실시하였음 이 핵실험의 우려를 보여 주는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사례

(iv) 비키니 환초는 핵실험지에 대한 탁당한 사례이다. 이곳에는 수많은 군사 유물과 특유의 지상 및 수중 경관 요인이 있다. 이는 냉전시대 단상의 웅장적인 증거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끝없는 경쟁을 증명한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하된 이후, 비키니 섬에서 이루어진 핵실험은 인류가 ‘핵시대’로 진입했음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또 주민 이주와 공중위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비키니 환초의 미셜 제도에서 민간인에게 가친 핵실험의 결과를 반영하게 되어 준다.

(v) 비키니 환초 핵실험지 또는 좀 더 넓게 여기에서 냉전 시대를 특징짓는 무기의 해체와 관련된 생애와 믿음은 국제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시간은 핵 군축을 중요하는 다수의 국제적 움직임들 유발하였다. 그들은 20세기 후반을 특징짓는 핵 시대와 관련된 강력한 상징과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 냈다.

[그림5] 67회 원폭실험이 자행된 냉전기를 상징하는 비키니섬

셋째는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의 개념 확장’이다. 살아있는 유산은 세계유산이 화석화된 문화재라는 경직성을 극복하고 인류의 삶 속에서 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유산 개념으로의 확장을 위해 채택되었다. 유산이 살아있다 함은 해당 유산이 탄생 이후 현재까지

지 원래 작동시스템이 유지되고 있거나 이에 버금가는 상황이 보존될 경우를 말한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원주민(지역민)이 해당 유산 속에서 살아가는 문화경관으로, 30여 개소로 파악된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현재에도 작동 중인, 즉 산업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산업유산이 있다. 등재된 산업유산이 작동 중이란 개축 등의 건축물 변형, 부품 교체 등의 기계 시설의 변형 등의 이유로 원형 파괴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을 암시한다.

Landscape of the Pico island Vineyard Culture

등재년도 : 2004년 / 포르투갈 / 유산면적(연중구역) : 190ha(2,445ha) / 문화경관 유형 : 2등급(회색경관)

들판과 진, 19세기 초기의 장원 영주의 저택, 포도주 저장실, 예베당과 항구들의 모습에서 15세기부터 포도 재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



(iii) 비쿠 섬의 경관은 작은 화산섬에서 포도 재배에 대한 독특한 반응을 반영하며, 15세기에 최초로 거주자들이 도착한 이후 진해해 온 것을 보여 준다.

(iv) 섬의 아름다운 경관은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다. 소규모 농부들이 포도밭 주위에 돌을 쌓아 벽을 만들었다. 이것은 뛰어난 환경에서도, 힘을 지속시키고, 것으로 침투하는 포도수를 만들어 낸 부분들의 삶의 증거이다.

[그림6] 살아있는 유산의 예 : 포르투갈의 피쿠섬의 포도밭 문화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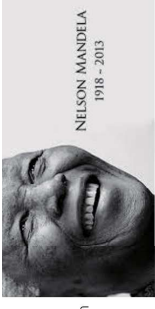
네 번째는 ‘특별한 근대 조성기법과 인물 관련 유산의 등재’이다. 조성기법의 경우, 근대의 특별한 이론 배경을 가진 기법이나 양식의 우수성이나 희소성을 강조되며 바우하우스, 모더니즘, 바로크양식 등 건축 양식들과 19세기~20세기의 건축, 토목기술을 상징하는 40여 개소의 공장시설이나 단지시설들이 주를 이룬다. 인물명

(건축가)이 유산명에 표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³⁾, 2016년에는 르코르뷔지에의 작품들이 ‘르코르뷔지에의 건축 작품들: 근대운동에 대한 탁월한 기여(The Architectural Work of Le Corbusier, an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Modern Movement)’라는 이름으로, 2019년에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8개 작품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20세기의 건축(The 20th-Century Architecture of Frank Lloyd Wright)’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되었다. 이외 노예수송의 상징 유적인 쿤타킨테 섬과 관련 유적(Kunta Kinteh Island and Related Sites)에도 인명이 포함되어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화의 상징 인물인 넬슨 만델라를 기념하는 ‘Human Rights, Liberation Struggle and Reconciliation: Nelson Mandela Legacy Sites’는 현재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3)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Antoni Gaudí), 빅토르 오리타(Victor Horta), 키를로스 라울 비야누에바(Carlos Raúl Villanueva), 루이스 바라간(Luis Barragan), 오귀스트 페레(AugustePerret),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 등이 포함된다.

Rabben is 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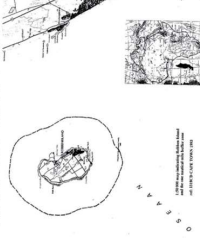
등재년도 : 1999년 / 남아프리카공화국 웨스턴 케이프 주(Western Cape Province) / 유산면적(안종구역) : 475ha(1600ha)



17세기~20세기까지 감옥, 군사기지, 사회부적격자(한센병 환자)를 수용하는 병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중 감옥은 20세기 말에 정치범을 수용한 곳으로 억압과 인종차별에 저항하여 민주주의 자유가 승리를 거둔 사실을 증언하는 사례 (Ⅲ) 로벤 섬의 간담들은 이성의 아두운 역사를 생생하게 증언한다. (Ⅳ) 로벤 섬과 감옥은 억압을 이겨낸 인간 정신,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를 상징한다.

[특이성]

- (a) 1845년~1931년 기간 동안 약 4,000명의 한센병 환자가 격리 수용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한센병 교회 및 한센병 수용소가 유산으로 포함되어 있음
- (b)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18년(27년 중) 수감했던 곳



[그림기]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연계된 로벤섬

마지막은 ‘초국경유산(trans-national heritage) 등재의 본격화’이다. 초국경유산이란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등재하는 세계유산을 말한다. 초국경유산은 국경선이 연속된 국가 간의 ‘연접형’과 지역별(또는 대륙별)로 완전히 분리된 ‘산재형’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전자는 면 또는 선형으로 형성된 유산이 국경에 걸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경우이며 후자는 특정의 인물이나 양식의 유산들이 점형으로 국가별로 산재하여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초국경유산은 1979년에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 걸쳐있는 ‘비아워비에자 숲(Białowieża Forest)’과 ‘알래스카-캐나다 국경의 산악공원군’(Tatshenshini-Alsek, Klutane, Wrangell-St. Elias and Reserve and Glacier Bay)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1개소 이상이 꾸준히 등재되어 총 34개

- ② 유산현장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우선순위 보존 및 이행계획 수립
- ③ 잠재적 위협 회피를 위해 허용가능한 방문자 수의 상한 설정
- ④ 유산 및 그 구성요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체계의 효과성 모니터링
- ⑤ 보전관리계획 및 지역보전협의회의 결정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 ⑥ 유산현장 각 구성요소의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지는 모든 직원과 이해당사자 대상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⑦ 각각의 유산 현장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여하는 방식과, 하나는 혹은 그 이상의 산업화 단계를 예증하며, 각 유산 현장의 진체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산에 대한 해석진략을 수립
- ⑧ 슈세이칸 및 미에쓰 해군항 도로건설사업 및 미이케항 신규 정비시설 개발사업 및 방문객시설 개선/개발 계획을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받을 것

이 권고사항에 대해 당시 일본측 수석대표였던 사토구니 대사는 “각 유산 현장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과 함께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 국민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가 징용정책을 시행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정보센터 설치 등 회생지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의 등재 과정 중에 발생한 국제 갈등의 과정을 경험한 유네스코는 관련 주변국들의 갈등 유발의 소지가 있는 유산들은 반드시 선 화해와 합의 후 등재를 추진하도록 권고하였

다. 이후 2017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기록유산 위원회에서도 분쟁 기억과 관련된 유산들에 대한 논제가 표면 위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전반의 상황들을 종합하여, 2018년 4월,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최근 분쟁의 기억과 관련된 장소의 세계유산 후보지명에 대한 평가’(Evaluation of World heritage Nomination related to Sites Associated with Memories of Recent Conflicts)라는 문서(ICOMOS DISCUSSION PAPER)를 통해 국제적인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는 유산들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이 문서에서 ‘최근’(Recent)은 20세기와 21세기로 한정하였고, 공통성(commonality)⁴⁾와 중립성(neutrality)⁵⁾의 측면에서 논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분쟁유산들은 아직 관련된 분쟁 사안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해자와 피해자 쌍방과 인류 전체가 이해(인정)할 수 있는 공통 의견을 가지기에는 오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기에 성급하게 등재대상의 유산으로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음도 규정하였다. 특히 분쟁이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희생자 또한 많은 경우, 어느 한 분쟁지역이 다른 지역들의 분쟁보다 어떤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교분석이 불가능함도 논제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7년이 지나도록 전체 역사를 알리기로 한 등재의 약

4) OUV에서 유산은 모든 현재 인류와 미래 세대에게 공통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분쟁유산은 분쟁의 승자인 국가나 지역에 한정된 기념물일 수 있음에 대한 논제를 제기하였다.

5) 분쟁의 기억은 자칫 정치적으로 또는 영향력을 가진 일부 사람(군)에 의해 자신들의 (외국인)진실로 설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속성을 가지는 분쟁유산에 대한 기억이 해당 유산에 대한 타자의 다른 기억들보다 더욱 더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논제를 제기하였다.

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2015년 권고사항의 미이행에 따른 2018년 재권고(42 COM 7B. 10)에 포함된 '당사자 간의 대화 권고'에서도 관련 당사자를 자국 내 기관으로만 한정하여 핵심 당사국인 한국을 배제한 것은 물론, 도리어 민족차별도 강제노동도 없었고 더군다나 동원된 자들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였다며 왜곡으로 몰아가고 있다. 전체 역사를 진시하기로 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현장과 1천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도쿄의 총무성 한 구식의 제2별관에 설치하는 물염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유네스코는 이 코모스와 함께 2021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일본 현장에서의 실사단 평가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의 여러 측면이 준수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당시 당사국이 약속했던 조치들이나 등재 당시 및 그 이후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들이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내리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메이지 산업혁명유산과 관련된 권고조치가 미이행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2022년 2월 1일 내각회의를 통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결정했다. 사도광산도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과 똑같은 길을 걸으려 한다. 시기를 '센코쿠 시대 말~에도시대'로 한정하여 강제동원의 시기를 벗어나려 한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산의 모습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동아시아 전체를 전쟁에 몰아넣었던 침략 시대의 결과물들인데, 어찌 땅속에 묻혀있는 이전 시대의 것만으로 세계유산을 노리려 하는지, 유산의 탄생에서 발전, 율령, 쇠퇴, 소멸에 이르는 광산의 온전한 역사를 설명하지 못하고, 유년기의 모습만을 광산 역사로 보아 달라 하는 일본의 모습 이 분개와 함께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한다.

세계유산은 인류 화합을 최고 가치로 천명하는 유네스코의 이름 아래 인정되는 것이기에, 국가 간의 분쟁 유발의 가능성을 가진 유산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인정과 갈등의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세계유산은 진정성과 완전성이란 조건 아래 한 점의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유산에 대한 모든 것이 진짜이고 진실하여야 하고 완전해야 한다.

이 시대에 세계유산을 가진다는 것, 또 많이 보유한다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는 진정 무엇일까? 일본의 행태를 보며, 우리 또한 욕심에 사로잡혀 다른 듯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다.

2) 등재 후(後) 관련 이슈

시간이 흐를수록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주제의 존재감이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다. 관광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확대, 수익 증대, 지방 및 지역시장의 형성과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관광은 자연 및 문화유산 보호, 교육과 해설을 통한 보존 가치 전파, 성공적인 환경 보전 사례의 연구 및 개발 지원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 아울러 관광은 기반시설의 개선, 이종문화 간 이해 폭의 증대, 지역 내 문화나 유산 및 전통에 대한 지역민들의 가치관 정립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세계유산지역이 관광과 관련된 다음의 문제들로 인해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되고 있다.

- 유산지역 내 시설, 주차구역, 기념품점, 호텔, 도로, 공항 등 관광관련 시설의 개발에 따른 여파
- 지반, 바닥포면, 벽의 가속화된 침식, 오염, 생태계 파괴 또는 야생생물에 대한 위험 등 물리적, 환경적 영향
- 지역민 착취나 유산지역 및 기념물에 대한 관광객들의 대량소비 등 사회적 여파
- 부적절한 재건축을 포함하는 침범성의 과도한 노출 및 관련 사업들

이러한 유산들 중 재질의 심각한 파손, 구조물이나 장식물의 심각한 파손 같은 '확실한 위험'과 유산 보호에 영향을 끼치는 법률적 상황의 변화, 보존정책의 결여 같은 '예상 위험'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World Heritage in danger)⁶⁾'을 선정한다. 이에 선정되면 유네스코의 특별한 관리와 함께 유네스코가 파견한 전문가들이 복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보존 상태와 처리 조치에 대해 매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심의한다. 선정 이후 보존상태가 크게 개선되면 목록에서 해제된다. 위험유산에 오른 유산들 중 등재가 취소된 유산도 있다. 2004년에 위험유산에 올랐던 드라스텐 엘베계곡(Dresden Elbe Valley)은 2009년에 결국 세계유산에서 제외되었는데, 원인은 엘베계곡을 지나는 교량(신규 건설)이 19세기 낭만주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였다. 2012년 위험유산에 오른 영국의 리버풀항도 항구 재개발 계획의 추진과 관련된 원충

지구의 개발 현상을 막지 못한 결과로 2021년에 등재가 취소되었다. 이처럼 유산의 등재 취지에서 벗어나는 관광화 및 개발 현상에 대한 대처는 유산 관리의 핵심 이슈라 할 수 있다.

2007년 제31차 세계유산회의에서 '세계유산 전략 목표(THE WORLD HERITAGE STRATEGIC OBJECTIVES)'로 5C (Credibility, Conservation, Capacity-building, Communication, Communities)를 채택했다. 이는 상호 신뢰성의 형성과 구축, 체계적인 보존 정책의 추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능력 배양, 지역민과의 상호 소통과 지역의 공동체의 참여 등이 앞으로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15개소의 세계유산과 12개소의 잠정유산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세계유산의 가치 창출과 연계 지역의 발전 도모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련 국도 및 도시의 관리 체계와 세계유산 정책 간의 통합적인 운영, 세계유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동체들의 상호 신뢰 회복과 긴밀한 소통체계의 안정적인 구축 등이 필수 시안으로 판단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문화적 위상 강화는 물론 차별화된 국제성과 지역성에 근거한 융합형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6) 위험유산은 1979년 지진으로 인한 파괴의 위험에 처한 '코토르 자연 역사 문화 지구(Natural and Cultural-Historical Region of Kotor)'를 최초로 하나, 현재 가장 오래된 위험유산은 1982년의 예루살렘 구시가지와 성벽(Old City of Jerusalem and Its Walls, 1981년 등재)이다. 2021년 등재와 동시에 광산 개발과 관련된 분쟁으로 위험유산에 오른 루마니아의 '로시아 몬타나 광산경관(Roşia Montană Mining Landscape)'까지 총 52개소가 위험유산에 속해 있다.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거대 건축물이다. 고대 이집트 문명을 구성하고 있는 어떠한 대상도 피라미드 정도의 관심은 받지 못했다. 또한 피라미드는 그 압도적인 규모와 높은 수준의 공학적 완성도, 그리고 그와는 대조되는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한 관련 기록들 때문에 오래도록, 널리 커다란 미스터리로 다뤄져 왔다. 그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은 학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계 밖에서도 열정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학계 밖의 노력들 가운데는 ‘음모론’에 가까운 것들도 많다. 여전히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둘러싸고 있는 의문점들은 여전히 많은 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피라미드의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의문점들 가운데 일부는 해결할 수 있다. 본 강연에서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변천해 온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이집트 피라미드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림1] 기저(Giza)의 피라미드군: 좌측부터 쿠푸, 카프레, 멘카우라의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일반적으로 ‘절대 권력을 지닌 고대 지배자의 과대망상이 만들어낸 사각뿔 모양의 거대한 왕묘’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설명은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다. 무엇보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는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절대 권력을 지닌 군주는 아니었다. 파라오는 절대군주라기 보다는 ‘우주적 정의/질서’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마아트(maat)를 잘 유지하면서 지켜나가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일종의 공무수행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 건축물을 세우는 작업은 전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기보다는, 사회전체의 목표를 염두에 둔 노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각각의 파라오들의 개인적 개성이 어느 정도는 피라미드 건설에 반영되기는 했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피라미드’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대신, 그들은 피라미드를 ‘메르(mr)’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카라(Saqqara)에 있는 조세르(Djoser)의 피라미드와 같은 ‘계단식 피라미드’는 일반 피라미드와는 달리 ‘에르(yr)’라고 불렀다. 예르는 ‘사다리’ 혹은 ‘계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원천한 사각뿔 형태를 하고 있는 일반 피라미드와 계단식 피라미드를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또 완전히 같은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피라미드를 지칭하는 메르나 예르 같은 일반명사도 있었지만, 각각의 피라미드들은 더 자주 개별적인 이름으로 불렸다. 예를 들어 기저에 있는 대피라미드는 ‘쿠푸의 지평선’으로 불렸고, 다슈르(Dashur)에 있는

스네페루(Sneferu)의 굴절 피라미드는 '남쪽의 빛나는 것'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피라미드(pyramid)라는 호칭은 '사각뿔' 혹은 '사각뿔 모양의 빵'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피라미스(τυρῆαις)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이처럼 고대 이집트와 관련이 있는 호칭, 지명, 인명 가운데는 이 '피라미드'처럼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림2]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

최초의 피라미드는 고왕국 3왕조 시대의 파라오인 조세르(재위 기원전 2667~2648년)에 의해서 기원전 2650년 경에 계단식으로 세워졌다. 이 최초의 피라미드에는 '최초'가 붙는 타이틀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석조 건축물'이라는 타이틀이다. 조세르 이후에 2, 3번 정도 계단식 피라미드가 더 지어졌고, 그 이후 3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후니(Huni, 재위 기원전 2637~2613년)

시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일반형 피라미드에 대한 건축이 시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후니는 결국 자신의 피라미드가 완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뒤이어 왕위에 오른 스네페루(재위 기원전 2613~2589년)가 장인의 피라미드를 이어서 지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왕위의 계승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져 내려오던 계승이 단절된 만큼 스네페루의 재위기부터 '4왕조'로 구분한다. 그런데 메이둠(Meidum)에 지어진 후니의 피라미드는 완공 직후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날이 피라미드가 '붕괴 피라미드' 혹은 '무너진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이 붕괴는 피라미드의 공학적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라미드 외부의 경사각이 너무 큰 상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3] 메이둠에 있는 후니의 무너진 피라미드

그런데 스테페루는 메이둠에서 선왕 후니의 피라미드를 이어서 짓는 것과 동시에 다슈르(Dashur)에서도 본인의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했다. 파라오들이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무덤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집트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스테페루 역시도 후니의 무덤을 완성하는 것과 함께 자신의 무덤을 짓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슈르의 피라미드도 처음에는 메이둠의 피라미드처럼 외부 경사가각이 50도가 넘는 수준으로 맞춰져 있었다. 그때 메이둠에서 피라미드 붕괴 사고가 났던 것이다. 메이둠 피라미드의 붕괴가 가파른 외부 경사각 때문이라고 판단한 파라오의 건축가들은 이미 54도가량의 경사각으로 절반쯤 지어진 피라미드의 상단부 경사각을 43도로 낮춘 것으로 보인다. 다슈르의 피라미드는 그렇게 이종의 경사각을 가진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고, 그 까닭으로 오늘날에는 ‘굴절 피라미드’라고 불린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완성된 굴절 피라미드를 보고 파라오의 건축가들은 뿌듯함을 느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피라미드의 주인인 스테페루는 이 기이한 형태의 피라미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파라오의 명에 따라 건축가들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건설 작업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신 피라미드의 설계는 좀 변경하였다. 메이둠에서 붕괴를 발생시킨 50도 대의 외부 경사각을 포기하고, 굴절 피라미드 상단부를 짓는데 사용했던 40도 대의 경사각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붉은 피라미드’는 굴절 피라미드에서 북쪽으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외부 경사각이 43도로 완성되었다. 최초로 온전하게 완성된 사각뿔 피라미드였다.



[그림4] 스테페루의 굴절 피라미드



[그림5] 스테페루의 붉은 피라미드

스네페루 시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아들 쿠푸(재위 기원전 2589-2566년)의 시대가 되면 피라미드 건축술은 정점에 이른다. 그 시대에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바로 한 변의 길이가 230미터, 높이는 146미터에 이르는 쿠푸의 피라미드로, 그 규모에 걸맞게 '대피라미드'라고 불리는 피라미드다. 이 피라미드를 짓는데 사용된 돌의 개수는 약 260만 개, 피라미드 전체의 무게는 약 700만 톤이나 된다.

쿠푸의 아들인 카프라는 대피라미드 바로 옆에 자신의 피라미드를 건설한다. 카프라 피라미드의 높이는 136미터 정도로 대피라미드보다는 작지만 여전히 굉장한 규모다. 또한 대피라미드보다 더 높은 곳에 건설되어 육안으로 볼 때는 조금 더 커 보이기도 한다. 기지에서 세 번째로 지어진 멘카우라의 피라미드는 이곳의 피라미드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다. 쿠푸와 카프라의 피라미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지만, 이 피라미드의 높이도 62미터에 이르는 정도다. 유난히 작은(?) 크기 때문에 예로부터 사람들은 멘카우라의 피라미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피라미드의 작은 규모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설명은 정치경제적인 것이다. 아버지인 카프라와 할아버지인 쿠푸의 지나치게 거대한 피라미드 건설 프로젝트로 인하여 국가의 인력과 기타 자원들이 모두 고갈되었고, 결국 멘카우라의 시대의 이집트에는 이 정도 규모의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는 사회적 역량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림6] 쿠푸의 대피라미드



[그림7] 카프라의 피라미드



[그림8] 멘카우라의 피라미드와 부속 피라미드들

실제로 멘카우라 시대 이후 피라미드들의 규모는 급속하게 작아진다. अबუსिर(Abusir)에 세워진 5왕조 시대(기원전 2494-2345년)의 피라미드들은 규모가 기자 시대의 피라미드들에 비해서 급격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학적 견고함과 세련됨의 수준도 상당히 낮아진 모습을 보인다. 이 피라미드들은 현재는 외부가 거의 다 무너져 모래 언덕이나 돌무지 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피라미드 건축의 수준은 정점을 찍은 직후 급속하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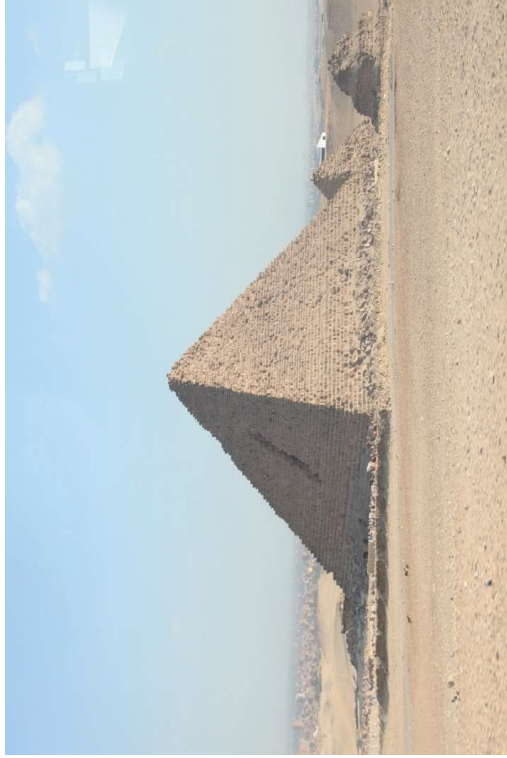


[그림9] अबूसिर의 5왕조 시대 피라미드군

이후 고왕국 7왕조의 파라오 이비(Iby, 재위 기원전 2170년 경) 시대를 마지막으로 피라미드는 잠시 모습을 감추게 된다. 그러다가 혼란스러웠던 제1중간기를 지나 이집트가 재통일되고 강력한 중앙정부를 재구성하는 중왕국 시대가 되어 피라미드는 다시 등장한다. 중왕국이 탄생하자마자 피라미드가 바로 재등장한 것은 아니고, 11왕조에서 12왕조로 왕조가 바뀐 후에 피라미드 건설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재등장한 피라미드는 규모도 무척 작고, 또 돌이 아닌 햇볕에 말린 벽돌을 주재료로 사용했다. 당연히 보존상태는 좋지 않다. 리슈트(Lisht)에 있는 아메넴헤트 1세(Amenemhet I, 재위 기원전 1985-1956년)의 피라미드, 역시 리슈트에 있는 센우스레트 1세(Senusret I, 재위 기원전 1956-1911년)의 피라미드, 라훈에 있는 센우스레트 2세(Senusret II, 재위 기원전 1877-1870년)의 피라미드

드, 다슈르와 하와라에 각각 1기씩 세워진 아메넴헤트 3세의 피라미드들이 중왕국 시대의 피라미드들이다.

중왕국 시대 이후 제2중간기를 지나면서 어찌 된 영문인지 피라미드는 점차 사용되지 않으면서 결국엔 완전히 사라져 다시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파라오들은 무덤의 위치를 지상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지하에 만들어진 암굴묘에 묻히게 된다. 현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투탕카멘(재위 기원전 1336-1327년)이나 람세스 2세 (재위 1279-1213년) 같은 파라오들은 피라미드가 아닌 암굴묘에 묻혔다.



[그림10] 중왕국 12왕조의 센우스레트 2세의 라훈 피라미드와 인근에 지어진 귀족들의 마스타바들

A large white rectangular area with horizontal lines, intended for handwritten notes.

1. 들어가는 말

고전기(기원전 5세기~4세기 후반까지) 고대 그리스 사회는 폴리스로 규정되는 여럿의 작은 공동체를 근간으로 하였다. 시민을 주축으로 구성된 폴리스는 다양한 정치 체제를 선보였고, 그 가운데 아테네는 민주정을 실험한 최초의 폴리스였다. 전성기를 구가하던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기원전 431~404년)을 치르며 쇠락하고 그리스의 지배력은 스파르타에서 테베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리스 폴리스들의 운명은 카이로네이아 전투(기원전 338년)에서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재위 360~336BC)의 승리로 전환점을 맞았다. 그리스의 북쪽에 위치한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이었던 필리포스 2세는 어린 시절 테베의 뛰어난 군사력과 통치력을 습득하여 왕의 자리에 오른 뒤에 왕권을 강화하고, 아테네의 식민도시였던 올린토스를 격퇴하는 등 세력을 넓혔다. 카이로네이아에서 필리포스 2세의 군대가 그리스 폴리스의 동맹군을 격파함으로써,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자치를 끝내고 마케도니아의 통치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에 그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가 왕권을 이어받고(재위 336~323BC), 이집트와 페르시아, 인도 북부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함으로써, 그리스 문화(Hellenism)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로 영향을 미치는 헬레니즘 시대(Hellenistic Era)를 열었다.

본 강연에서 다루게 되는 왕릉은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왕실 가족이 매장된 곳으로, 필리포스 2세와 그의 가족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1977년에 그리스 고고학자 마블리스 안드로니코스에 의

해서 발굴된 이래로,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1996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이 고대의 세계에서 끼쳤던 문화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자료나 연구가 국내에서는 아직 활발하지는 못하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나 문화에 관한 사료가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마케도니아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고고학적 발굴이라는 점도 어려움을 더한다. 고고학 발굴은 시간과 공간이 다층적으로 중첩된 결과를 밝혀내는 과정이기에 현지 지리와 공간, 언어, 역사 등의 배경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강연은 고대 마케도니아의 왕릉 유적지와 주요 발굴물을 소개하고, 해당 유물과 유적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다룰 것이다. 그리고 왕릉의 발견이 단순히 역사거나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넘어서 현대의 그리스와 주변 국가의 외교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동시대적 사건이라는 점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왕국의 역사

기원전 5세기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마케도니아의 왕 아민다스 1세(재위 540~495BC)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 1세(재위 495~442BC)에 관한 일화를 전한다. 그는 올림피아 제전에 참여하고자 하였는데, 그리스인(Hellene)이 아닌 자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이 아르고스인임을 주장하여 결국 탈리기 경주에 참

어할 수 있었고, 우승자와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였다(Herod. Hist. 5.22). 헤로도토스의 기록은 기원전 5세기에 그리스인들은 아직 마케도니아인들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갖지 못했다는 점과 마케도니아의 통치자들이 그리스적 정체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보인다. 실제로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은 그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고대 마케도니아인들이 그리스인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 하지만 헤로도토스는 이러한 의구심을 지울 단서를 제공한다. 그는 마케도니아의 건국에 관한 전승을 전한다. 기원전 7세기 중반에 페르디카스 1세와 그의 두 형제가 아르고스를 출발하여 북쪽으로 여행하여 현대의 베리아(Veria)와 베르기나(Vergina)에 인접한 베르미온(Vermion) 산 근처에 정착하였다고 전한다(Herod. Hist. 8.137-9). 따라서 고대 마케도니아인들은 그들 자신을 그리스인이라고 여겼고, 그들이 사용한 언어와 그들이 남긴 문화적 흔적은 그리스적 정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인들도 마케도니아인들을 그리스인이라고 여겼다¹⁾.

1) 고대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수도였던 아이기나이(베르기나)와 두 번째 수도였던 펠라에서 발견된 고고학 유적과 유물의 문화적 정체성을 비롯하여, 그곳에서 발견된 서판에 적인 그리스어로 적힌 글 등을 통해서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이 그리스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분명하다.



[그림 1] 마케도니아 왕국과 베르기나(옛 아이기나이)의 지도²⁾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이 있던 지역은 숲이 우거지고 비옥한 계곡이 있고 가족이 풍부하여 자급자족적인 반면에, 남부의 그리스 폴리스와 비교하여 항구나 인접한 섬은 부족하여 다른 지역과의 교류나 식민지 개척과 같은 대외 활동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래서 필리포스 2세의 대외 확장 정책이 벌어지기 전까지 외부로 확장하지 않았고, 페르디카스 1세 이래로 군주제가 지속되었다.

2) 출처: <https://www.smithsonianmag.com/history/philip-macedonia-even-greater-alexander-the-great-180974878/>

3. 아이기아와 발굴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는 아이기아(Aigai, Ayræat)로 불렸는데, 그 기원에 관해서 기원전 1세기의 역사가 디오도로스(Diodorus Siculus)가 진한다³⁾. 아르고스에서 온 페르디카스 1세는 왕국의 힘을 키우고자 델피에서 다음과 같은 신탁의 내용을 받았다. “...급히 가거라... 눈같은 양털을 지닌 흰 뿔을 지닌 염소가, 새벽에 쉬고 있는 것을 보리라. 축복받은 신들을 위해 그 자리에서 희생제를 치르고 한 국가의 으뜸이 될 도시를 일으키라.” 신탁과 다르지 않게, 실제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인 아이기아는 ‘염소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아이기아에는 왕실의 관습에 따라 왕과 왕비가 아이기아에 묻혔다고 진한다⁴⁾.

고대 마케도니아의 왕릉이 있는 아이기아를 찾으려는 고고학자들의 시도는 이미 19세기부터 있었다⁵⁾. 1861년 프랑스 고고학자 레온 외제(Leon Heuzey)와 건축가 앙리 도메(Henry Daumet)가 궁전의 동쪽에서 발굴하였다. 1922년에는 그리스-터키 전쟁의 결과로 그리스계 난민들의 일부가 베르기니아에 정착하였고, 이들의 정착촌을 건설할 때 아이기아 궁전의 고대 유적이 건축 자재로 사용되어 유적이 가 파괴되기도 했다. 하지만 1937년부터 1940년에는 테살로니키 대

학의 K. 로마이오스(Konstantinos Romaios) 고고학 교수에 의해서 궁전에서 발굴작업이 재개되면서 이곳의 역사적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베르기니아에서 왕가의 거주지인 궁전이 발견됨으로써 현재의 베르기니아 고대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아이기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1949년에서 1960년 사이에 그리스 고고학자 마놀리스 안드로니코스(Manolis Andronikos)가 고분에서 발굴을 수행하였고, 1976년에 아이기아의 도굴되지 않은 상태의 대고분/대봉분(the Great Tumulus)이 높이 100m, 너비 12m 규모로 발굴되었다. 1977년에는 필리포스 2세의 무덤과 왕릉 및 보물들이 발견되었다⁶⁾. 1980년에서 1986년 사이에는 아이기아의 극장과, 에우클레이아(Eukleia)와 키벨레(Cybele)의 성역, 아크로폴리스를 비롯하여 초기 왕과 평민의 매장지와 1,000개가 넘는 무덤이 발굴되었다. 900헥타르가 넘는 면적에 약 500개의 고분이 도시의 외곽에서도 발견되어 약 6,500헥타르를 아우르는 아이기아의 지리적 범위가 드러났다. 광범위한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고고학적 발견으로 1996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3) Diodorus Siculus, Bibliotheka, 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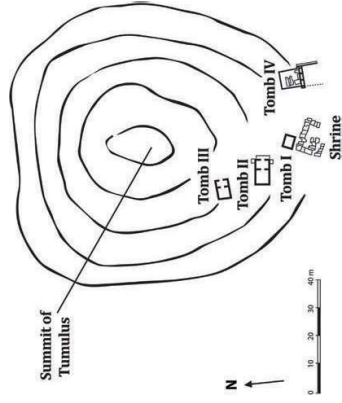
4) 필리포스 2세의 시대에 이미 왕국의 수도가 아이기아에서 펠라(Pella)로 옮겨진 상태였지만, 아이기아는 여전히 왕들의 의례를 위한 곳으로 남아 있었다.

5) <Overview of the scientific research> <https://www.aigai.gr/www.aigai.gr/index.html>

6) “Manolis Andronikos,” s.v. The Makers of Classical Archaeology (2000), p.21-22.

4. 아이기아의 왕릉

아이기아의 네크로폴리스(necropolis)에는 선대 마케도니아인들을 기리기 위한 공간이 지하에 마련되었다. 네크로폴리스는 산 자들을 위해서 도시의 외곽지역에 마련되었다. 안드로니코스가 발견한 아이기아의 대봉분은 기원전 4세기 후반에서 3세기 초의 기간에 조성된 4기의 무덤을 포함한다. 무덤의 주인에 관해서는 최초 발굴자의 주장처럼 필리포스 2세기 그 왕실 가족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현재까지 발굴을 통해서 공전과 아크로폴리스, 성벽 등이 발견되어 천도 이전에 마케도니아 왕실의 모습을 재구성하게 되었다⁷⁾.



[그림2] 아이기아/베르기니아의 대봉분의 지도⁸⁾

7) 대외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항구와 인접해 있는, 왕국의 두 번째 수도가 된 펠라에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공전의 모습이 발견되었다.

8) David D G Grant, "The Vergina Tombs. A forensic 'step away' from identifying the family of Alexander the Great?," Current World Archaeology(2020), p.100.

아이기아에 있는 왕릉 박물관은 1993년에 개관하였는데, 필리포스 2세의 고분을 보호하기 위해 그 위에 지붕을 얻어 봉분의 모습으로 건축되었다. 박물관 내부에는 4기의 무덤과 작은 사당(heroon) 1개가 포함된다. 이 무덤군은 기원전 3세기 초반에 피로스의 갈라티아족 용병들에 의해서 파괴되었는데, 특히 지상에 노출되어 있던 헤로온(Heroon)이 가장 심하게 훼손되었다. 다행히 무덤 II와 III는 도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부장품들과 함께 발견되어 고고학적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 무덤들의 옆에 존재하는 헤로온은 일종의 사당으로, 이것의 존재는 무덤의 주인들이 숭배를 받았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것은 할리카르나소스에 있는 마우솔레움(Mausoleum)과 같이 기원전 4세기를 전후로 하여 그리스 세계에 나타나는 통치자인 숭배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발굴자인 안드로니코스는 이것이 갈라티아 용병의 파괴로부터 무덤군을 보호하고자 안티고노스 2세(Gonatas, 재위 277-274, 272-239BC)가 대 봉분을 건설하였다고 제안하였다.

1) 무덤 I, 일명 “페르세포네의 무덤”

무덤 I은 상자형(cist) 석실의 형태를 갖는데, 그 내부에는 7명의 미확인 유해가 발견되었다. 그 각각은 성인 남성 1인, 성인 여성 1인, 유아 4인, 태아 1인이었다. 이 무덤은 한명 이상의 망자들을 위한 것이다. 무덤 I의 석실의 내부에 ‘페르세포네의 남치’ 장면이 벽화로 장식되어 있다. 이 주제는 전통적으로 마케도니아의 왕족과 귀족의 무

덤에서 인기가 있던 주제이다⁹⁾. 자하세계의 신 하테스가 꽃을 따던 이름다운 페르세포네를 부인으로 맞고자 납치하여 마차에 태우고, 페르세포네의 죽음의 장면을 지켜보는 님프의 곁에 질린 모습과 영혼의 인도자(psychopompos)인 헤르메스가 마차를 이끄는 장면을 3미터에 이르는 기념비적인 규모에 담았다. 그리스 미술에서 도기화를 제외하고는 대형 회화의 증거는 보존성의 문제로 거의 온전히 남아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무덤 I의 벽화를 통해서 기원전 4세기 그리스 회화의 발달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필리포스와 알렉산드로스의 치세에 마케도니아 왕가는 당대 유명 예술가들을 궁정에 초대하고 후원하였다. 무덤 I의 벽화와 무덤 II의 파사드 벽화는 당대 대가들의 솜씨로 여겨진다. 특히 발굴자는 두 벽화를 그린 인물로 아티카 출신의 니코마코스를 거론한다¹⁰⁾. 니코마코스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속도감이 있는 필치로 잘 알려져 있었다. 무덤 I에 있는 ‘페르세포네 납치’의 벽화에서 자유로운 붓질과 중첩된 선들이 빠른 동세와 인물들의 격렬한 감정을 전달하고 있어서 그러한 주장에 힘을 신는다¹¹⁾.

9) 현재 발굴 중에 있는 암페폴리스의 동분의 내실 바닥을 장식하는 모자이크에서 같은 주제가 발견된다. 암페폴리스의 동분은 그 규모와 연대의 측면에서 볼 때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 왕조와 관련된 핵심적인 인물이 그 무덤의 주인으로 여겨진다. 김해진, <고대 암페폴리스(Aμφιπολη)의 카스타노동분(Τυμβὸς_Καστῶ)_발굴에 대한 논평>, 서양고대사연구39 (2014), pp.287-293.

10) M. Andonikos, Bergina II (1994), pp.126-130.

11) 대외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항구와 인접해 있는 왕국의 두 번째 수도가 된 펠라에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궁전의 모습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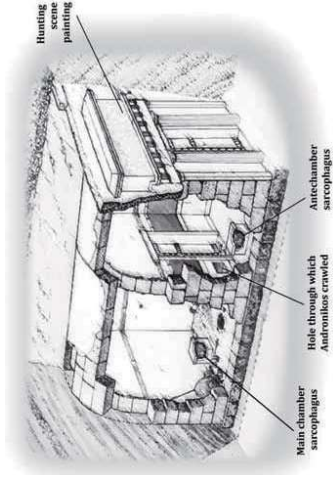
2) 무덤 II, 일명 “필리포스 2세의 무덤”

무덤 II는 정면 외부에 도리스식 파스드를 지니고, 상부 프리즈에는 사냥 장면이 재현된 벽화로 장식되어 있고, 그 내부는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안쪽에 위치한 주실에서는 황금으로 만든 11킬로그램 가량의 함(terrac)이 발견되었다. 함의 외부는 ‘베르기니아의 태양’(Ἡλιος τῆς Βεργίνας)으로 일컫는 문양이 부조로 장식되어 있고, 그 내부에는 고인의 화장된 한 남성의 뼈가 보라색 천에 싸인 채로 발견되었다¹²⁾. 그의 머리에는 참나무잎 모양으로 제작된 황금관이 함께 발견되었다. 또한 고인이 누워있던 침상은 황금과 상아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장례 연회를 위한 각종 은기를 비롯해 금으로 장식된 갑옷과 투구 등이 함께 있었다. 부장품들의 연대는 기원전 350년에서 330년 사이로 추정된다.

발굴자는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이 무덤을 디오도로스가 진히는 필리포스 2세의 죽음과 연관시켰다. 필리포스 2세는 기원전 336년에 딸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식이 열리는 극장에서 암살되었다. 그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알렉산드로스 3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곧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다. 당시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펠라였지만, 왕실 전통에 따라 마케도니아의 옛 수도인 아이가이에서 장례식이

12) ‘베르기니아의 태양’으로 알려진 이 문양은 구 유고슬라비아공화국에서 1992년에 독립한 신생국이 국기에 사용하면서 그리스와 외교적 분쟁을 일으킨 바 있다. 그리스 정부에서는 ‘마케도니아’라는 국호와 ‘베르기니아의 태양’을 국기에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그것이 그리스의 문화 유산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결국 2018년에 <프레스타 협정>에 따라, 신생국의 국호를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으로 인정하고,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에 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주권을 그리스가 갖는 것에 합의하였다.

호화롭게 거행되었다. 왕의 시신은 황금과 상아로 장식된 침상에 놓여졌고, 참나무 잎으로 장식된 금관을 머리에 쓴 채로 헤라클레스처럼 화장되었다고 전한다.¹³⁾



[그림3] 베르기니 대 봉분의 무덤 II의 내부 투시도¹⁴⁾

최근 그리스 연구팀은 해당 무덤에서 발견된 유골의 분석을 통해 유골의 오른쪽 눈에 서 화살로 인한 상처가 필리포스 2세가 서기전 354년 메토네(Methone)의 진장에서 얻은 상처임을 밝힌 바 있어서 안드로니코스의 주장은 더 신빙성을 얻고 있다.¹⁵⁾

무덤 II의 현관과 연결된 전실(antechamber)에서도 황금 함에 담긴 유해가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보라색의 옷감으로 감싼 여성의 유해

와 황금으로 만든 화관이 함께 발견되어, 필리포스 2세의 여러 부인 가운데 한 명이 그 주인공으로 여겨진다. 필리포스의 장례식에서 불길에 몸을 던졌다고 전해지는 트리키아 출신의 부인인 메다(Meda)나 필리포스의 장례보다 몇 년 앞서서 죽음을 맞이했던 니키시폴리(Nikissipoli)가 거론된다.

이것은 플라톤이 언급한 '마케도니아식 무덤'의 형태와 일치한다. "그들(마케도니아인들)의 무덤은 지하에 건설되며, 오래 지속되는 구멍이 많은 식재로 된 직사각형의 아치 형태의 천장을 지닌다. 그리고 나란히 놓인 돌로 된 침상들을 갖는다. 여기에 망자를 눕히고, 그 주위에 원형의 고분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심고 한쪽 끝에 출입구를 만든다(Plato, Laws, 947 d-e)." 플라톤의 이 기록은 아이가이에서 발견된 왕릉보다 더 이른 시기의 고분에 관한 것이지만, '마케도니아의 고분'이라고 부르는 유형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고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발견된 고분들 대부분이 아치형 천장을 갖고 지하실에 위치한다는 점, 내구성이 강한 구멍이 많은 석재를 이용한다는 점, 원형의 봉분 형태를 취하거나, 하나 또는 두 개의 침상이 놓여 있는 점도 고고학적으로 일치한다¹⁶⁾.

무덤 II의 파사드에서 보이는 사냥장면은 마케도니아 왕실이 즐겨 사용하던 주제이지만, 그보다는 소아시아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였다. 이 사냥장면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

13) Diodorus Siculus, Bibliotheka, 16, 66-95.

14) David D G Grant, "The Vergina Tombs, A forensic 'step away' from identifying the family of Alexander the Great?," Current World Archaeology(2020), p.101.

15) Rossella Lorenzi, "Remains of Alexander the Great's Father Confirmed Found," Discovery News (2014/10/10).

16) Rene Ginouves, Macedonia, From Philip II to the Roman Conquest, P.147. 플라톤의 언급을 고려하면, 마케도니아의 고분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알려진 파사드의 건축적 장식보다는 아치형 천장이 마케도니아 고분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까 지 총 약 70개의 마케도니아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필리포스 2세 지하에서 가장 많이 고대 마케도니아 국경 내에서 62개, 남부 그리스에서 6개, 소아시아에서 2개이다.

덤의 주인으로 상정되는 장년의 남자와 화면 중앙의 화관을 쓴 소년이다. 화면의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사자를 공격하는 장년의 인물과 짧은 키톤을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창을 든 소년은 왕국의 지배권을 계승하는 관계를 암시한다¹⁷⁾. 사자사냥은 마케도니아 왕실의 계승자들에게 왕의 통치력과 적법한 왕권의 계승을 의미하는 시각적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3) 무덤 III, 일명 “왕자의 무덤”과 무덤 IV “기둥들의 무덤”

무덤 II보다 작은 규모로 바로 옆에 건설된 무덤 III도 도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굴되었는데, 무덤 II와 같이 두 개의 방으로 구성된 구조를 지닌다. 특히 정면 파사드에 장식된 문의 양옆에 방패가 부조로 장식된 모습으로 남성의 무덤을 암시한다. 그 내부에서는 은빛이 도는 히드리아에 있던 화장된 유해가 어린 소년의 것으로 밝혀졌다. 히드리아의 위에는 금으로 된 참나무 회환이 놓여 있었고, 왕실의 일원임을 나타내는 은기와 무기들이 함께 발견되었다. 이 무덤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 4세(생몰 323-309BC)의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사망하던 기원전 323년에 어머니 록사나의 뱃속에 있었다. 그는 대왕의 적법한 후계자로 성장할 때까지 섭정을 하였던 카산드로스에 의해서 심대 초반의 나이에 암살되었다.

17) 조은정, 앞의 글, p.2123

무덤 IV는 고분에 동떨어져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있고, 무덤의 일부인 기둥이 멀리 떨어져서 발견되었다. 도굴과 약탈로 가장 많은 훼손을 당한 탓에 무덤 IV는 대봉분의 왕릉 가운데 상대적으로 크게 조명 받지 못하였다.

NOT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containing 20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NOT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containing 20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positioned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1. 진의 기원과 발전

- 감숙성 천수(天水市)의 초기 유적; 예현(禮縣) 대보자산(大保子山)의 서주시기 진묘, 진공(秦公) 청동기
- 『사기』 「진본기(秦本紀)」의 초기 진; 건구(犬丘)/서수(西垂)
- 최근 제기된 진의 동방기원설; 청화대학 소장 죽간 사서 『계년(繫年)』
- 주 왕실 동천기의 역할과 춘추시대의 동진, 주의 핵심 지역 회복
- 전국시대 상앙(商鞅, 390-338 BC)의 개혁

2. 진 시황제(259-210 BC)의 중국 통일

- 진왕 영정(嬴政)과 여불위
- 이사(李斯, 284-208)와 범가 중용
- 파촉 정복과 진의 득주
- 정무에 특별히 힘쓴 정열적인 통치자: 쉬지 않고 공문서 검토

3. 진시황의 통일정책

- 봉건제와 균현제
- 중앙집권과 관료제
- 문자, 도량형, 수레바퀴 간격 등 통일
- 분서갱유

- 전국 순수
- 남월, 흉노, 조선 정벌
- 무리한 토목공사

4. 진시황의 사망

- 5번째 순수
- 환관 조고(趙高)의 농간과 2세 황제 호해(胡亥)
- 진승 오광의 난과 진의 멸망

5. 진시황릉과 병마용갱

- 위치: 서안(西安) 동쪽 50km 지점 임동현(臨東縣) 러산(驪山) 기슭의 이상적 지형
- 규모: 현재 높이 50m, 봉분 바닥 350×345m
- 도굴과 발굴: 본격적 고고학 탐사 1960년대 시작; 1974년 병마용갱 발견
- 사마천의 진시황릉에 대한 기록: 13세에 즉위 후 건설 시작, 70만 명 죄수 동원, 3층의 우주 축소판 지하무덤, 궁전과 전망대, 백관들, 진귀한 기물들, 자동 격발 장치, 하늘과 땅의 모습 재현, 기름으로 램프 밝혀 무한하게 타오르게
- 최근 고고학자들의 새로운 추측: 능원 내의 매장갱 건조 방식, 도

용의 제작 방식, 색조, 인장 등 문자 기록을 통해 5년 정도의 단기간에 조성되었을 가능성

- 묘역 기본 구조: 황제릉(능표와 봉토, 지하묘지), 능원(동서 970, 남북 2188m; 내성[1335×560m], 지하의 많은 부장갱; 많은 건축, 제사 건축과 능원 관리 건축), 왕릉구(60평방킬로미터)



[그림1] 진시황릉 전경



[그림2] 진시황릉과 병마용갱

- 200개의 부장갱: 병마용갱은 규모가 좀 큰 일부; 다양한 부장갱은 중앙집권 정부의 기구

*미국간 부장갱

*동거마 부장갱

*갑옷과 투구 부장갱

*문관용 부장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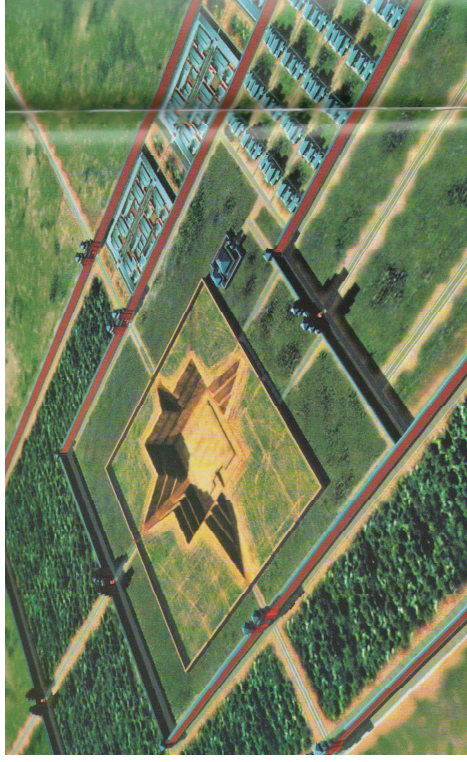
*백회용 부장갱

- 병마용갱: 묘 동쪽 1.5km 지점 1~3호갱, 비어 있는 4호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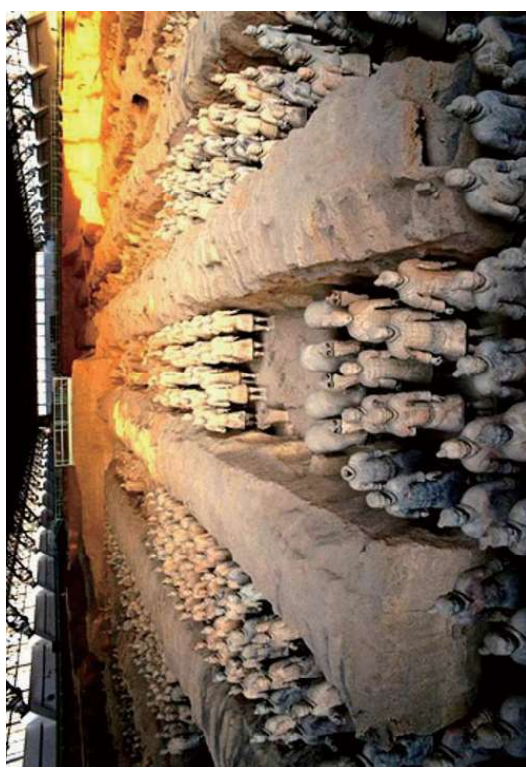
*1호갱: 동서 239, 남북 62m; 군인 6000명, 마차 160대-우군

*2호갱: 무사 939명, 말 472필-좌군

*3호갱: 지휘부-중군



[그림3] 진시황 능원과 그 내부 추정도



[그림4] 1호 병마용갱



[그림5] 문관용

6. 진시황릉은 “영생을 꿈꾼 기원”인가?

- 신석기~서주시대의 대형묘와 거마갱
- 춘추시대 봉분묘(분구묘) 출현
- 전국시대의 발전: 증후올묘의 생시 공간과 중산왕릉의 공원화된 묘역
- 병마용갱과 거마갱?
- 진시황릉에 앞선 진나라 왕묘의 특징: 다른 어느 지역보다 거대
- 이전 묘의 다양한 양상이 결합된 중국 묘장 발전의 정점
- 진시황릉보다 큰 무덤?

7. 진시황에 대한 평가

- 사마천의 평가: 천하통일의 유능한 군주, 엄격한 법치주의의 폭군
- 한대의 전실화: 바다신과의 싸움, 불로장생의 연원 등

8. 최근 출토문헌에 나타난 진시황의 이면

- 북경대학 소장 한대 죽간문헌 『조정서(趙正書)』: 진시황 임종 진 이사와의 대화; 진시황이라는 칭호 안 쓰고 조정(趙政)으로 지칭; 진시황 생시에 2세 황제 호해에게 양위 승인; 사마천의 시기에 진 시황에 대한 다른 기록 존재했음을 보여줌
- 폭군 이미지는 한나라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

NOT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containing 20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NOT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containing 20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positioned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무덤에는 문헌 이의 곡진한 사연이 담겨 있다. 하물며 조선왕조(1392-1910) 600년을 다스린 27명의 국왕이나 그들의 왕후들의 유택인 조선왕릉은 말할 나위 없다. 무엇보다 이러한 왕릉은 왕의 주검이 문헌 사서로는 사생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성 당시 조선왕조 오백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풍속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역사와 장묘 문화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왕릉의 능묘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독특한 곡선과 자연 친화적인 형태와 더불어 규모와 양식에서 독창적인 아름다움이 있으며, 능역의 성역공간과 참배공간이나 정자각·비각·재실 등의 건축물 그리고 문무석인과 양호·마석 등 석조각이 배치된 문인과 무인 공간의 구분에 근체미가 엿보이고, 매장의 깊이와 봉분의 높이가 적절하고, 기타 시설물과 의례용 공예품이나 전통 단청 및 조경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조형예술의 집합체로서, 건축사·조각사·회화사·조경사 등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더구나 조선후기에는 왕릉을 조성하고자 산릉도감을 설치하고 인력과 물력을 총동원하여 조형품을 제작하였는데, 이러한 조성 과정의 전말이 세계기록유산인 『산릉도감의궤』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와 같은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조선왕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러한 조선왕릉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며, 오랜 세월 동안 중국 황제릉과 다른 우리만의 독특한 왕릉 형식으로 완성해낸 결정체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는 신라 후기 왕릉에서 12지 병풍석과 난간석을 배치하는 전통은 고려 왕릉으로 계속 이어졌다. 특히 고려 말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현·정릉은 고려 왕릉의 형식을 일신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조선 왕릉의 전범이 된 획기적인 왕

릉이다. 우선 구조적인 면에서 왕릉인 현릉과 왕후릉인 정릉을 별개로 세우지 않고 쌍릉 형식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석조각의 종별과 수량이 완비되어 봉분 주위에 병풍석과 난간석 및 양호석을 배치하고, 혼유석과 망주석 및 장명등을 세웠으며, 단을 구분하여 문석인과 무석인을 배치하였다. 석조각은 이전 시기의 단순한 면 처리를 뛰어넘어 같은 시기 원대 능묘 조각의 세련된 표현 양식과 비견될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 아울러 가장 아래쪽에는 정자각을 조성하여 의례 공간까지 마련하고 있다.



고려 공민왕 현정릉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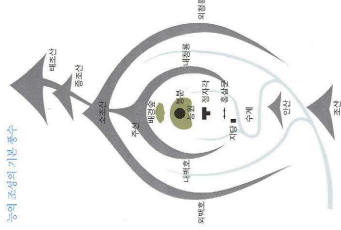
눈 내린 공민왕 현정릉

고려 현정릉의 문무석인

유교를 국시로 삼았던 조선에서는 이전 시대의 왕릉 문화를 수용하면서, 여기에 더해 조선왕조 오백년의 역사와 문화,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내었다. 태종이 태조의 건원릉과 신의왕후의 제릉을 세운 과정이나 정종과 정안왕후의 후릉을 조성할 때의 전 과정은 『양조실록』에 실려 후일 『국조오례의』·홍례에 수록되어, 조선시대 왕릉의 제도와 의례가 확립되었다. 이후 조선시대 내내 왕릉을 조성할 때마다 앞서 시기의 왕릉은 전례로 따랐으며, 조영의 전말은 『산릉도감의궤』에 수록하여 전례를 규범화한 것도 특징적이다.

조선왕릉은 풍수적으로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조건을 갖추었다. 왕

릉 뒤쪽에는 주산을 두어 바람을 감추고[藏風], 물줄기는 생동하는 방위로 흐르는 것을 금기시하여 청룡과 백호가 호위하고 있는 산세의 남쪽에 안산(案山)을 두었다. 풍수에 따라 자리매김한 왕릉은 형식에 있어 단릉, 쌍릉, 합장릉, 삼연릉, 동역이강릉 등 다양하지만, 양은 우측에, 왕비는 좌측에 두는[右上左下] 유교적인 예제는 고수하였다.



단릉	왕이나 왕비의 봉분을 별도로 조성한 단독의 형태.	EX) 건원릉, 정릉, 정릉, 은릉, 의정암, 수경암
쌍릉	한 인대에 나란하게 왕과 왕비의 봉분을 마련한 형태.	EX) 전릉, 연릉, 강릉, 영릉, 봉음
삼연릉	한 인대에 왕과 왕비, 개별 세 봉분을 마련하여 세 개 단 형태.	EX) 경릉
동원이강릉	하나의 정자와 뒤로 한 인대의 단을 줄기에 봉분의 동북과 서남을 배치한 형태.	EX) 정릉, 연릉, 강릉, 영릉
동원상안릉	왕과 왕비의 능이 같은 인대의 위아래에 골짜기 각각 조성된 형태.	EX) 영릉, 의릉
합장릉	왕과 왕비를 하나의 봉분에 합장한 형태.	EX) 수릉, 인릉, 공릉, 장릉

능역조성의 기본 풍수

봉분조성 형태에 따른 분류

건원릉을 전범으로 삼은 조선왕릉의 구조는 거의 비슷비슷하다.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신성한 지역으로, 약 30-40리에 금표를 세워 출입을 막았다. 화재를 막기 위해 왕릉 주위에는 해자를 파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해자 밖에 풀과 나무를 불사는 곳을 화소(火巢)라 하였다. 입구에는 능을 관리했던 관리들의 숙소이자 제사에 관계된 일체의 일을 주관했던 재실을 두며,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능 앞을 흐르는 도랑에는 금천교를 놓았다. 그 건너에는 능침의 입구를 알리는 홍살문을 세워 세속과 가르는 신성한 공간의 입구를 표시하였다.



조선1대

태조 건원릉 전경

조선1대

태조 건원릉의 능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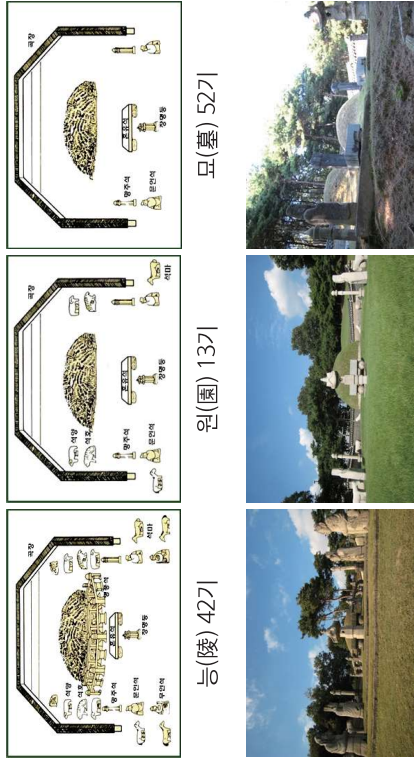
조선21대

영조, 정순후 원릉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는 돌을 깔았는데, 왼쪽의 약간 높은 길은 혼령이 다니는 신도(神道)이고, 오른쪽은 왕이 가는 어도(御道)이다. 신도 좌우의 넓은 공간에는 제사에 필요한 음식을 차리는 수리간이나 제기를 모아두는 제기고와 능체를 지낼 때 제물과 제수를 준비하는 일을 맡아보던 수복방 등을 배치하였다. 능침 가까운 곳에는 능의 주인인 왕이나 왕후의 묘호나 일생의 행적을 적은 비석을 비각에 세웠다. 홍살문과 일직선으로 배치된 정자각은 몸과 혼령이 만나는 장소로서 왕의 혼이 깃들 수 있도록 신어평상을 놓고 그 앞에 제상을 두어 기신제 등의 제례를 올렸다. 봉분 아래 이곳까지가 혼령과 후손들이 함께 하는 공간이다. 정자각의 뒤쪽에는 제물을 태우는 망료위가 있고, 그 뒤로는 축문을 태워 묻는 예감이 있다.

혼령을 위한 공간은 능침부터이다. 능침은 자연 산세의 평당에 조선(造山) 형식으로 흙더미를 쌓아 작은 언덕(岡)처럼 조성한다. 왕릉은 일반인의 무덤들과 달리 높이 마치 왕을 우러러 보는 것과 같은 시각적 효과를 주는데 바로 사초지(莎草地)이다. 일반적으로 신라 왕릉은 평지에, 고려 왕릉은 풍수설에 의해 산 위에 조성한 데 비해, 조선 왕릉은 신도 아니고 들도 아닌 곳에 조성한 것이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조선왕실의 무덤은 위계에 따라 크게 능·원·묘(陵·園·墓)로 구분된다. 이것은 왕후의 소생이 아니어서 종묘에 부모할 수 없던 영·정조에 의해 확립된 궁원제(宮園制)에서 비롯된다. 곧 영조는 자신의 사친인 숙빈 최씨를 향사할 별묘는 육상궁(毓祥宮)으로, 무덤은 소령원(昭寧園)으로 조성하였고, 정조 또한 사친인 사도세자의 별묘는 경모궁(景慕宮)으로, 무덤은 현릉원(顯隆園, 현 隆陵)으로 조성하였다. 이후 조선의 왕과 왕후 및 추존 왕과 왕후의 무덤은 능(陵), 왕세자와 왕세자빈 그리고 왕의 친부모의 무덤을 원(園), 나머지 왕족의 무덤을 묘(墓)라고 하는데, 현재는 능 44기, 원 13기, 묘 64기가 남아있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시대의 도성이 있던 서울과 경기도 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선조 목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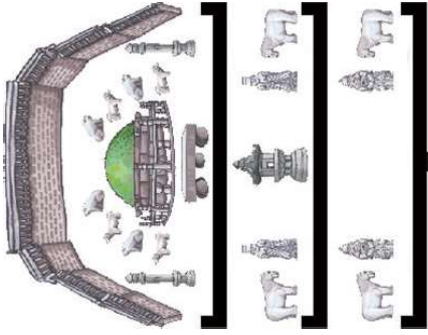
영취원

광해군 묘

조선왕릉 44기 중 개성에 있는 태조원비 신의왕후 계릉, 정종과 정인왕후 후릉을 제외한 42기가 서울 근교에 흩어져 있다. 이를 18지

구로 구분하면, 동구릉지구 9기, 홍유릉지구 2기, 광릉지구 1기, 사릉지구 1기, 영녕릉지구 2기, 영월 장릉지구 1기, 선정릉지구 2기, 현인릉지구 2기, 태강릉지구 2기, 정릉지구 1기, 의릉지구 1기, 서오릉지구 5기, 서삼릉지구 3기, 온릉지구 1기, 파주 삼릉지구 3기, 파주 장릉지구 1기, 김포 장릉지구 1기, 용진릉지구 1기 등이다.

사방 161보로 정해진 능침의 봉분에는 망자의 영원한 사후 보처인 현실(玄室)을 배치하고, 주위에 여러 석물을 배치하여 왕의 존엄성을 상징한다. 봉분은 병풍석과 난간석을 두르고, 뒤쪽 3면에 곡담을 둘러싸며, 곡담과 봉분 사이에는 잡귀를 막아주는 석호와 석양 4쌍을 교대로 빙 둘러 배치한다. 봉분 앞쪽에는 몸을 찾아온 혼이 노니는 혼유석을 설치하며, 그 좌우에 망주석을 한 쌍씩 배치한다. 한단 낮은 중간 단[중계]부터는 신하의 단으로서 중앙에는 장명등을 세우고, 그 좌우에 문석인과 석마를, 맨 아랫단[하계]에도 무석인과 석마를 세운다. 고려말 현정릉에는 석마가 없었는데 세종이 종국의 고제(古制)를 연구하여 석마를 설치하므로서 고려 왕릉과 달라지게 되었다. 조선의 능원묘는 품격에 따라 능침의 규모나 석물의 종류가 다르게 되어 있다. 능과 원과 묘에는 이들 무석인과 마석이 생략되어 있어, 무석인의 유무는 능원을 구분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왕릉 석물의 배치현황

비록 짧은 시기였지만 우리나라에도 황제릉이 있다. 대한제국(1897-1910)을 다스린 고종의 흥릉과 순종의 흥릉과 유릉이 그것이다. 흥릉과 유릉이 조선왕릉과 양식적으로 다른 점은 정자각 대신 일자형의 침전을 세우고, 비각에 황제 묘호가 새겨진 비석이 서 있다. 황제릉의 능상 석물은 왕릉과 대개 비슷하나, 침전 앞에 석인석수를 배치하여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석조각은 침전에 가까운 쪽에 문무석인을 1쌍씩 세웠고, 무석인상부터 흥살문까지 좌우로 각 7기씩, 총 7쌍의 석수가 마주하고 있다. 황제릉의 석수는 순서대로 살피보 면 기림상, 코끼리상, 사자상, 해태상, 낙태상, 낙타상, 말상의 순서이다.

명칭	능(陵)	원(園)	묘(墓)
장명동	○	○	○
근유석	○	○	○
망주석	○	○	○
병풍석	○	×	×
난간석	○	×	×
석양	○(2쌍)	○(1쌍)	×
석호	○(2쌍)	○(1쌍)	×
문인석	○	○	○
무인석	○	×	×
석마	○	○	×

왕릉 석물의 종류와 수량



대한제국 고종 흥릉 전경



고종 흥릉 앞 석인석수



순종 유릉 앞 석인석수

특히 고종황제의 흥릉은 대한제국기 1900년에 명나라 황제릉을 참작하고 구본신참[舊本新參]의 조형의식을 토대로 침전과 석조각을 완성하고, 고종 사후 1919년에 비로소 세운 대한제국의 유일한 황제릉이다. 한편 유릉의 경우 침전은 대한제국 유일의 황태자비인 순명황후의 사후 1904년 독심 유강원[현 어린이대공원]에 세워졌던 것을 1926년 순종이 죽자 금곡으로 옮겨 세운 대한제국시기의 것이다. 하지만 문무석인을 비롯하여 침전 앞의 석조각은 1927년 일본인 조각가에 의해 다시 제작되어 세워 우리 조전의 미의식과 다른 식민지 양식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왕릉은 당대의 예술성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역사 공간이면서 제례를 통해 후손과 교류하는 의례의 장이다. 특히 공시적 관점에서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한 건축 양식이나 능침과 어우러지는 석물 조각은 인위적으로 구획되지 않고 자연과 합일되도록 조성한 조형적 심미안을 엿볼 수 있다. 500년을 이어온 유교 제례와 토속 풍수사상이 공존, 자연관과 생태철학도 엿어낼 수 있다. 이렇게 조선왕릉은 제례문화의 장구한 전통, 제작 진과정을 기록한 의계의 보존, 건축·조각·공예 등 종합 예술적 가치, 왕조의 흥망성쇠까지 읽어낼 수 있는 사적 지표라 할 수 있다.

NOT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containing 20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NOT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containing 20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positioned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1. 가야의 명칭

‘가야’는 1세기부터 6세기까지 한반도 남부에 존재했던 여러 정치체를 총칭한다. 그러나 가야인 스스로 작성한 역사기록이 남지 않아 ‘가야’라는 명칭이 국명인지, 종족을 뜻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가야’를 가리키는 이름도 다양하며 그 한자표기도 제각각이다. 한·중·일 사서에는 ‘가야’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가야(伽耶·伽耶·伽那), 가라(伽羅), 가량(加良), 가락(駕洛·伽洛), 구야(狗耶), 임나(任那) 등 10여 종의 표현이 등장한다. 이 중 가장 많이 쓰인 것은 가라(伽羅)이지만 1145년에 편찬된 『삼국사기』에는 가야(伽耶), 1281년에 편찬된 『삼국유사』에는 가야(伽耶),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에는 가야(伽耶)로 표현하였다. 현재 국내 학계에서는 국내 가장 오래된 용례를 참고하여 가야(伽耶)로 표기한다.



삼국사기(1145년)

삼국유사(1281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그림 1] 가야의 기록이 수록된 문헌(한국학중앙연구원 참조)

중국에서는 3~7세기에 편찬된 여러 문헌에서 다양한 가야 정치체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다. 3세기에 편찬된 『삼국지』에는 ‘변진구야국’, ‘변진안야국’ 등 가야의 땅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12개국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송서』, 『수서』, 『남사』, 『한원』 등에는 ‘임나와 가라’가 기재되어 있다. 8~9세기에 일본에서 편찬된 『일본서기』, 『고사기』, 『속일본기』, 『신찬성씨록』에도 ‘임나’를 비롯한 가야의 여러 정치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한국의 『삼국사기』에는 금관국·아라국·골포국·칠포국·고사포국의 이름이 등장하며, 『삼국유사』에는 아라·가야·대가야·소가야·비화가야·성산가야·고령가야·보라국·고지국·사물국 등이 등장한다. 흔히 가야는 5가야 또는 6가야만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처럼 다양한 이름을 가진 여러 정치체가 존재했다. 단, 이 시기는 한자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문헌에 따라 동일한 정치체가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삼국지』에 기록된 ‘변진구야국’, 『삼국사기』에 기록된 ‘가라국’과 ‘금관국’은 금관가야의 이칭으로 보고 있으며, 『삼국지』에 기록된 ‘변진안야국’, 『삼국사기』에 기록된 ‘아시랑국’과 ‘아나가야’은 아라가야의 이칭으로 보고 있다. 문헌 기록을 통해 가야에는 여러 정치체가 서로의 필요에 따라 이합집산하면서 동일한 정치·문화권을 형성하면서 공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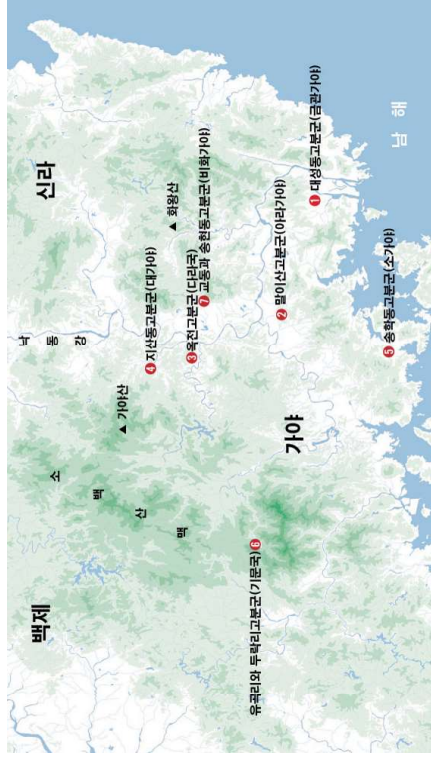
2. 가야사의 전개

기록을 통해 가야 전체의 역사를 상세히 알기는 어렵다. 단, 가야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기록은 남아있다. 『삼국유사』 왕력 「가락국기」에 따르면, 42년에 수로왕이 가락국을 건국한 것으로 되어있어 대개 1세기 전후에 가야가 건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야의 멸망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532년에 금관국이 멸망하고, 562년에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 제국이 멸망하였다. 고고학계에서는 가야의 건국 시기를 2세기 또는 3세기로 다소 늦추어 보는 견해도 있으나 멸망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가야사는 대체로 4세기 또는 5세기를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다. 전기에는 남해안을 통해 전해진 신진문화의 영향으로 경남의 김해·창원·함안·고성·사천과 부산의 동래에서 가야 세력이 성장하였고, 후기에는 경북 고령, 경남 거창·함양·함천·산청, 낙동강 동쪽의 경남 창녕, 호남 동부지역의 전북 장수·남원, 전남 순천·여수·광양지역으로 가야 문화권이 확대된다. 가야 전기에는 금관가야·아라가야가 강성하였고, 후기에는 대가야·소가야·비화가야·다라국·기문국 등이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3. 가야의 영역

가야의 영역은 『삼국유사』에 북쪽은 가야산, 남쪽은 남해, 동쪽은 낙동강, 서쪽은 지리산을 경계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현재의 경상남도 지역과 경상북도 고령군 일대가 해당하며 가야 유적의 분포범위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낙동강 동쪽에 위치한 경남 창녕군은 6세기 초까지 가야의 영역이었으며 부산광역시 일원과 경남 밀양군도 한 때 가야의 영역이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전라북도 장수군과 남원시, 전라남도 순천시·여수시·광양군 등 호남 동부지역 일부가 가야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 성과에 의하면 가야 전기에는 김해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하류역과 남해안 일대가 가야의 세력권이었고, 후기에는 경남 내륙과 호남의 동부지역으로 세력이 확대되었다.



[그림 2] 가야의 영역과 주요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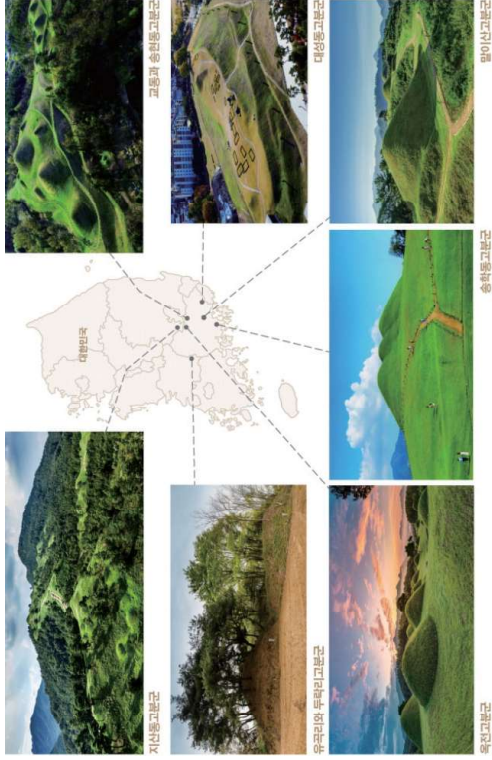
4. 자율과 공존

가야는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로 성장한 고구려·백제·신라와 달리 다수의 정치체가 공존하였다. 가야의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체가 연맹을 이루고 있었다는 연맹체설과 여러 정치체가 제각각 분립되어 제국(諸國)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분립설로 나뉜다. 연맹체설은 가야 전역이 하나의 연맹체를 형성하였다고 보는 단일연맹체설과 지역별로 구분된 연맹체가 공존하였다는 지역연맹체설로 세분된다. 최근에는 경북 고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야가 가야 북부지역에 영역국가를 형성했다는 견해도 발표되고 있다. 가야의 정치체제에 대해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주변의 고구려·백제·신라와 다른 정치·경제·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가야 각국은 해안이나 높은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자율성이 강했다. 그러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자원의 편중과 폐쇄적인 환경요인을 극복하고 공통된 문화권을 형성하여 주변 강대국에 대응하면서 발전하였다. 또한 가야 각국은 주변국과의 자율적인 교섭과 교류를 통해 다원적인 관계를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고대 동아시아에는 강력한 정치권력이 등장하여 주변 지역을 복속시키며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를 형성해 나갔지만, 가야는 다수의 정치체가 병존하면서 연맹 또는 연합이라는 독특한 정치체제를 유지하였다. 이는 동아시아 고대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5. 7개의 ‘가야고분군’

역사기록이 부족한 가야는 오랫동안 우리의 역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그로 인해 가야, 가야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이 만연하다. 가야가 우리의 역사로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이다. 이 시기 주체적인 한국사 연구와 더불어 지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다. 가야 문화권에서도 가야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가야 유적에 대한 고고학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를 알리기 위한 박물관이 곳곳에 건립되었다. 더불어 가야사를 전공하는 연구자가 증가하면서 가야사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문헌에 기록된 가야 정치체와 그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이 실제로 확인되면서 공존적이면서도 독자적인 가야문화의 특성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경북·전북에서는 자율과 공존을 추구하며 동아시아 고대 문화권 형성에 기여했던 가야문명의 가치를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7개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7개의 ‘가야고분군’은 현재까지 파악된 가야의 7개 정치체가 조성한 지배층 고분군이 다. 김해 대성동고분군은 금관가야, 함안 말이산고분군은 아라가야, 함천 옥전고분군은 다라국, 고령 지산동고분군은 대가야, 고성 송학동고분군은 소가야, 남원 유곡리와 두라리고분군과 기문, 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은 비화기야의 지배층 고분군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림 3] 세계유산 등재 추진 7개 가야고분군

6. 동아시아 문명의 가교

고대 동아시아 사회는 집단의 경계를 넘어 사람, 물건, 사상이 자유롭게 흘러들던 열린 세계였다. 선진적인 토목건축기술과 수공업(토기·청동기·철기 등) 기술을 지닌 사람들이 대륙과 해양을 넘나들었고, 한자, 유교·불교, 율령 등이 퍼져나가면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가야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문명의 가교였다. 가야는 해로와 수로, 육로가 연계된 체계적인 교역망을 통해 동아시아 세계를 이었고, 동아시아 문명을 융성하게 하였다.

가야 각국은 주변 국가와 지을적으로 교류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다. 금관가야와 소가야는 남해안 해로를 통해 중국, 백제(마한), 왜를 연결하였다. 280년경 편찬된 중국의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는 가야(변한)에서 생산된 철이 중국 근현과 바다 건너 왜로 수출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중국에서 가야를 거쳐 왜로 이어진 항로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3세기 후반에 금관가야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가야토기는 4세기 후반에 일본열도로 전파되어 일본 고훈시대를 대표하는 ‘스에키’토기를 탄생시켰다. 주변 각국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금관가야의 텅이쇠·쇠도끼 등 각종 철제품도 가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교역 네트워크를 증명해 준다. 김해 구산동유적은 북부 규슈 왜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한 마을로 판명되었고, 김해 봉황동유적과 관동리유적에서는 선작장과 물품을 저장했던 창고가 다수 확인되었다. 고성만에 조성된 송학동고분군에는 백제·신라·왜에서 반입된 유물이 다량으로 부장되어 있었다. 아라가야·비화가야·다라국은 남해안과 남강·낙동강을 통해 해양과 한반도 내륙의 여러 집단을 연결하였고, 기문국은 육로를 통해 중국과 백제, 가야를 이었다. 대가야는 가야 북부지역의 풍부한 철광석과 금광의 개발을 통해 성장하였으며, 낙동강과 섬진강 수로를 활용하여 주변국과 교역하였다. 이는 대가야에서 생산된 토기, 철제품(무기·마구), 장신구(관·귀걸이)가 일본열도 각지에 수출되고 있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가야에서 생산된 철은 일본열도 각지로 수출되어 정치세력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유물은 옥진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리잔이다. 이는 서역에서 제작된 것으로 증원 또는 북방을 거쳐 한반도 남쪽까지 다다랐다. 신라 경주와 일본 오사카 등지의 고분에서 출토

된 유리잔도 이러한 루트를 통해 전달된 것이다. 이처럼 교역은 가야 문명의 토대가 되었고, 가야는 서로 다른 문화가 섞이는 열린 공간이 되었다. 가야는 비록 작고 여럿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자율과 공존의 질서 속에서 완충시대, 교역의 장으로서 동아시아 강대국 사이에서 오랫동안 변형할 수 있었다.

7.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죽은 자를 위해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이런 이유로 고분유산은 신석기시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시간에 걸쳐있고 전 세계에 골고루 분포한다. 세계유산에는 다양한 고분유산이 등재되어 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기념물, 인도 타지마할과 같은 건축물, 돌이나 흙을 쌓아 봉분을 만든 무덤 등 그 형태와 재료의 다양성은 물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유교, 풍수지리와 같은 종교 및 사상 등 고분이 조성된 배경에서도 차이가 난다. 고대 동아시아에서는 권력을 상징하는 기념물로서 왕궁·고분·성곽·사원 등 다양한 건축물을 건립하였다. 가야는 권력을 상징하는 기념물로서 정치적 중심지에 고분군을 조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가야고분군은 가야 각국의 지배층이 정치권력을 상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구릉지나 산지에 조성한 기념물로서 지배권력의 정당성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특별한 장치로 이용

되었다. 따라서 가야 각국에 조성된 가야고분군에는 가야의 정치·사회·문화·문화를 알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고 가야연맹의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것이 가야의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을 휩쓸고 있는 근대적 민족주의는 고대 동아시아 사회를 한층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민족과 국경의 경계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는 사회 분위기, 시각으로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상호교류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던 고대 동아시아 사회를 이해하기 어렵다. 자율과 공존의 정치체, 동아시아 세계로 열려 있었던 가야는 고대 동아시아 사회의 다양성과 역동성, 개방성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2019, 『가야, 동아시아 교류와 네트워크의 중심지들』.
 김장석, 2012, 『고대 交易場의 중립성과 연맹의 성립-3~4세기 加耶聯盟體를 중심으로』, 『歷史學報』216.
 박노자, 2010, 『거꾸로 보는 고대사』, 한겨레출판사.
 윤신태, 2014, 『가야,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 『한국 고대사 연구의 시간과 방법-노태돈교수 정년기념논총』, 세계질.
 윤신태, 2019, 『민족·국가·발전 중심의 가야사 극복』, 『가야, 동아시아 교류와 네트워크의 중심지들』, 국립중앙박물관.

NOT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containing 20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NOTE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containing 20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positioned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I. 세계유산 제도

1. 세계유산 개념과 협약

유네스코(UNESCO,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는 인류를 위해 꼭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들을 모아 유네스코 등재 유산으로 지정했다. 유네스코 등재 유산은 유산의 형태에 따라서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으로 구분된다. 세계유산(World Heritage)은 1972년 유네스코 제17차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거 “전 세계 인류의 공동 재산으로 등록되어 보존, 복구 등 특별 관리되고 있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을 말한다. 이 협약은 자연 재해나 전쟁 등으로 파괴의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복구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하여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국제적 협력 및 나라별 유산 보호 활동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밖에도 음악, 춤이나 공연 예술과 같은 형태가 없는 유산을 인류무형유산으로, 그리고 문서, 도면, 필름 등 전 세계의 귀중한 기록들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해 보호하고 있다.

세계유산 협약에는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과 자연유산(Natural Heritage)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있으며, 유산 보호를 위해 국가적·국제적 차원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가 설명되어 있다.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 협약은 20개 회원국이 가입한 1975년 12월에야 효력을 갖게 되었고, 실질적인 협약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명시한 '세계유

산 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이 마련됐다. 최근까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보완된 운영지침은 총 9개 장과 290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양식, 잠정목록 신청서 양식, 국제지원금 신청 양식 등의 각종 양식과 참고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4장에는 등재된 유산들의 보존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고, 여기에는 세계유산의 삭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5장에서는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시행하는 세계유산의 정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세계유산 등재 요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유산 자체가 갖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국가의 보존 관리 대책을 인정받아야 한다. 유네스코에서 요구하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은 10가지로, 세계유산 등재 기준 1부터 6까지는 문화유산에 해당되며, 7부터 10까지는 자연유산에 해당된다. 10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다. 즉,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 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해당 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제도적 관리 체계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1)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는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자연적 차원의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어떠한 유산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핵심 요소로서 진정성과 완전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진정성(Authenticity)은 해당 유산의 문화적 가치가 그 형태와 디자인, 소재와 재료, 용도와 기능, 전통·기법·관리체계, 위치와 환경, 언어와 무형적 요소, 정신과 감성 및 기타 내·외부 요인 등 다양한 속성을 통하여 진실 되고 신뢰성 있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요인이다. 진정성은 문화유산에만 적용되는데, 문화유산이 창조될 당시의 가치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즉, 유산의 원형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비록 원래의 모습에서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 담겨진 가치를 얼마나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완전성(Integrity)은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표현에 필요한 요소 일체를 갖추고 있는지, 본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특징 및 과정을 완벽하게 구현할 만큼의 충분한 규모인지, 보존 상태는 양호하며 향후 위협에의 대비는 충분한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진정성이 문화유산에만 적용되는 것에 비해 완전성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모두에 해당된다. 2012년 운영지침에 완전성은 “자연유산 및/또는 문화유산과 그 속성의 전체성 및 온전성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명시하였다.

2) 확고한 보존 관리 체계

세계유산 협약은 각국이 자국 내에 있는 유산 보존을 위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 책임있는 보존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은 물론 세계유산 등재 이후에도 유네스코에 정기적으로 세계유산의 현황을 보고해야 하고, 반대로 유네스코 측에서는 보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유산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 내 세계유산 보존 상태와 협약 이행을 위해 취한 보호 활동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정기 보고는 당사국들이 직접 제출하며, 6년을 주기로 때로 특별히 나누어 준비하고 있다. 정기 보고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는 유산들의 상태를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한다. 그 조치 가운데 하나가 해당 유산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의 경우 매년 그 보존 현황을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유네스코 사무국과 여타 기관 및 자문 기구가 위험에 처해 있는 세계유산의 보존 상태에 관해 세계유산위원회 측에 보고하는 모니터링 절차도 있다. 이는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들의 보호 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협약국들이 행하는 정기 보고와 별개로 위급한 상황이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세계유산위원회와 그 자문 기구들이 협력해 대응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받는 당사국들은 세계유산센터를 통해 세계유산위원회에 유산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II.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

1. 모니터링

1) 대응 모니터링의 정의와 목표

대응 모니터링(reactive monitoring)은 사무국, 유네스코의 다른 부문들, 그리고 자문기구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특정 세계유산의 보존상태에 대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사국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나 보존상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작업이 진행될 때마다 구체적인 보고서와 영향 연구를 제출해야 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어떠한 유산이든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에 최대한 기술적 협력을 제공하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2) 당사국 또는 기타 출처에서 취득한 정보

세계유산위원회는 협약 당사국이 협약에 근거해 보호 중인 지역에서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복원사업이나 신규 건설사업을 시행 또는 허가하는 경우 그 의도를 사무국을 통해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청한다. 통지는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가령 특정 사업에 대한 기본 문서 작성 전) 또한 반복하

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 위원회가 해당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사무국이 세계유산의 심각한 훼손 사실이나 약정한 기한 내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내용을 관련 당사국 이외의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하는 경우, 사무국은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 하에 가능한 한 해당 정보의 출처와 내용을 검증하고 해당 당사국의 의견을 요청한다.

3)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접수된 정보는 당사국과 자문기구의 의견과 함께 각 유산의 보존상태에 대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돼 위원회에 제공되며, 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a) 해당 유산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았으며 더 이상의 행동이 취해져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b) 위원회가 해당 유산에 심각한 훼손이 진행되었으나 복원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는 당사국이 적절한 기한 내에 유산의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조건 하에 해당 유산의 목록 등재를 지속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당사국은 경우에 따라 유산의 훼손을 되돌리고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조건을 구하고자 관련 자문기구나 기타 단체의 전문실사 요청을 희망할 수 있다.

c) 위원회는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유산을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할 수 있다.

- d) 특정 유산이 목록 등재의 근거가 된 특징을 영구적으로 상실할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다. 사무국은 그러한 관련 조치를 취하기 전 당사국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 이에 대한 당사국의 의견은 위원회에서 검토된다.
- e) 위원회가 위의 a)나 b), c), d)의 조치 중 하나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 대응 모니터링 실시단 파견이나 전문가와의 협의, 또는 자문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관한 정기보고

1) 목표

당사국은 자국 영토에 소재한 세계유산의 보존상태를 비롯해 채택한 법 및 행정규정, 그리고 협약 적용을 위해 취한 다른 조치들에 대한 보고서를 세계유산위원회를 통해 유네스코총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정기보고는 다음 네 가지 목적을 갖는다.

- a) 세계유산협약 적용에 대한 당사국의 평가 제공
 b) 시간이 흘렀음에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제공
 c) 유산의 변화하는 환경과 보존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등재된 세계

유산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 d) 협약 이행과 세계유산 보존에 대한 당사국 간의 지역 협력 및 정보, 경험 교류의 틀 제공
 정기보고는 등재된 유산을 장기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협약 이행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하다. 정기보고는 또한 세계유산위원회와 총회에서 채택된 정책을 당사국과 세계유산이 이행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2) 절차와 양식

매 6년마다 당사국은 세계유산위원회가 검토할 정기보고서를 제출한다. 6년의 정기보고주기동안 당사국은 '아랍-아프리카-아시아태평양-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유럽 및 북미' 순서에 따라 지역별로 보고한다. 각 주기의 6년째 되는 해는 숙고 및 평가기간으로 삼는다.

정기보고 질문지는 해당 시 각국 세계유산 연락담당자 및 유산관리자가 작성하는 온라인 틀이다.

- a) I절은 당사국이 채택한 법과 행정 규정, 그리고 협약 적용을 위해 취한 다른 조치들, 해당 분야에서 획득한 구체적인 경험을 다룬다. 이는 특히 협약의 구체적인 조항에 명시된 일반적인 의무와 관련된다.

- b) II절은 관련 당사국 영토에 위치한 특정 세계유산의 보존상태를 다룬다. 이 절은 각 세계유산별로 완성되어야 한다.

당사국은 정보 관리와 분석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

지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틀을 이용해 영어 또는 불어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3) 평가와 후속 절차

사무국은 각국의 보고 내용을 ‘지역별 세계유산 현황(Regional State of the World Heritage)’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편찬하여 제공한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정기보고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거기서 야기되는 사인들에 대해 관련 지역 당사국들에 지원을 제공한다.

3. 세계문화유산 영향평가 지침

1) 지침 제작 배경

2011년 국제기념물협의회(ICOMOS)는 “세계문화유산을 위한 유산영향평가 지침(Guidance on Heritage Impact Assessment for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을 발간하였다. 이 지침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잠재적 개발에 의해 받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세계유산에 대한 유산영향평가(HIA)의 의뢰 절차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지침은 [유산의] 관리자, 개발자, 전문가, 전문가, 그리고 의사결정자들을 위한 것이며, 또한 세계유산위원회 및 당사국과 관련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세계

유산을 별도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OUV의 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유산영향평가가 세계유산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시하고 유산영향평가의 활용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최근 UNESCO 세계유산위원회는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세계유산에 대한 위협들에 관한 보존상태보고서[SOC]를 많이 다루어 왔다. 이러한 개발에는 토지이용 정책의 변화와 대규모 도시 계획 뿐만 아니라 도로, 다리, 고층 건물, 박스형 건물(예를 들어 쇼팽 물 등), 부적절하거나 주변 환경과 맞지 않는 무감각한 개발, 재개발, 철거, 풍력발전과 같은 새로운 기반시설 유형이 포함된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관광으로 인한 위험도 검토해 왔다. 이들 계획 중 대부분은 [유산의] 외관, 스카이라인, 주요 조망, 그리고 OUV에 기여하는 다른 속성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려면, 계획된 변화들이 OUV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기존에는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대부분 환경영향평가(EIA) 절차를 활용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유산의 OUV 표현과 직접 연결되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대상 유산의 OUV에 대한 모든 영향을 개별적이고 총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배경에서 이 지침이 제작된 것이다.

2) 유산영향평가 권장 절차

변화가 세계유산의 OUV에 영향을 미칠 경우, 문화(그리고/또는 자연) 유산의 속성에 대한 고려가 핵심이 되어야 하고, 어떠한 일반적인 인 평가(환경영향평가와 같은)에 있어서도 초기에 제시되어야 한다. [유산의] 관리자와 의사결정자는 경쟁적인 이용이나 개발보다 유산 보존의 필요성에 더 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핵심 고려 사항은 세계유산의 지위에 위협이나 위험이 되는 것인지이고, 그리고 이것은 유산영향평가 보고서에서 명확하게 다루어야 한다.

평가 과정은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문에 답해야 한다.

- 위험에 처한 유산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 해당 유산이 OUV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가
- 변화 또는 개발이 OUV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이러한 영향은 어떻게 회피, 축소, 회복, 보상될 수 있는가

아울러 개발에 대한 설계와 계획 과정을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닌 사전 예방 방식으로 정보를 주기 위해, 과정 초반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단 초기 개발안 또는 [유산의] 용도 변경이 확인되면, 어떤 유산 평가라도, 의사 결정 근거를 제공할 유산영향평가의 필요한 작업 범위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영향을 받는 모든 공동체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과의 조기 협의가 중요하다.

평가준비서(유산영향평가 요약)는 당사국, 지방 또는 지역 정부, 유산 전문가 또는 관리자, 지역 공동체 또는 기타 필요에 따른 관계자

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합의되어야 한다. 평가준비서는 무엇이 실시되는지, 왜, 어떻게, 언제, 그리고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평가준비서는 세계유산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OUV를 제시해야 한다. 변화 또는 개발의 필요성, 유산과 그 주변의 현 상황에 대한 요약, 고려되고 있는 대안 개발에 대한 상세 정보, 유산영향평가의 방법론 개요 및 위임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된 변화나 개발에 대한 개요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제안된 개발이 유산구역 안인지, 완충 구역 안인지, 또는 양자의 밖이지만 유산의 주변 환경 안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평가준비서는 크거나 중요한 영향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면 전체 유산영향평가 보고서는 변경된 개발 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반응을 평가할 수 있다. 이밖에 평가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와 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적절한 자격과 경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등도 중요하다.

4. 지속가능한 활용 원칙

세계유산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신중하여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함과 동시에 진 인류가 해당 유산을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데 있다. 세계유산센터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유산 운영 지침에도 그러한 원칙과 방향을 명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NOTE _____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containing 20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positioned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NOTE _____

A large white rounded rectangle containing 20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position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제23기 가야학아카데미

| 탁월한 보편적 가치, 유네스코 세계유산 I **왕릉편** |

발행처 : 국립김해박물관
50911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의길 190
Tel_ 055) 320-6800 Fax_ 055) 328-2468

발행일 : 2022년 4월

편집디자인 : 리드릭
및 인쇄처 0726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96
Tel_ 02) 3667-4945 Fax_ 02) 3667-4942

